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국어학 및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문제점
(최종 보고서)

책임연구원 이완수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10. 9. 20

목차

목차	2
표 목차	4
그림 목차	6
연구결과요약	7
1. 연구 취지	9
1) 연구 목적	9
2) 연구 문제	9
3) 기대효과	10
2. 기존 연구 검토	11
1) 국어학 관점의 연구	11
(1) 어휘 측면	11
(2) 표현 측면	11
(3) 문장 측면	12
2) 저널리즘 관점의 연구	12
(1) 객관성 및 정확성	13
(2) 공정성	14
(3) 다양성	15
3. 연구방법	16
1) 분석 매체와 분석 뉴스	16
2) 표본 추출	16
3) 코딩	17
(1) 전체 가이드라인	17
(2) 국어학 관점의 코딩 유목	17
(3) 저널리즘 관점의 코딩 유목	27
(4) 코딩과 코더 신뢰도	33
4. 분석결과	34
1) 국어 측면	34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34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35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36
(4) ‘갓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37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38
(6) 시점 혼돈 표현 수	39
(7) ‘[명사]+~중이다’ 식의 표현 수	40
(8) [수사 + 명사] 표현의 수	41
(9) 동의 중복어(접말표현) 수	42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43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44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45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46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47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48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49
2) 저널리즘 측면	50
(1) 기사의 주제	50
(2) 토대 정보의 신뢰성	54
(3)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55
(4)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56
(5) 전체 문장 수	58
(6)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59
(7)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61
(8) 실명 취재원 수	64
(9) 익명 취재원 수	65
(10)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attributed) 문장 수	66
(11)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attributed) 문장 수	67
(12)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68
(13) 무(無)주체(또는 無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69
(14)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70
(15)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71
(16) 과어휘 수	72
5. 방송 3사 종합 및 결론	73
1) 국어 측면	73
2) 저널리즘 측면	74
참고문헌	78

표 목차

<표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34
<표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35
<표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36
<표 4> ‘갓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37
<표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38
<표 6> 시점 혼돈 표현 수	39
<표 7> ‘[명사]+ ~중이다’ 식의 표현 수	40
<표 8> [수사 + 명사] 표현의 수	41
<표 9> 동의 중복어(결말표현) 수	42
<표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43
<표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44
<표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45
<표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46
<표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47
<표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48
<표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49
<표 17> 기사의 주제	50
<표 18> KBS 기사의 주제	51
<표 19> MBC 기사의 주제	53
<표 20> SBS 기사의 주제	54
<표 21> 토대 정보의 신뢰성	55
<표 22> 방송사별 토대 정보의 신뢰성	55
<표 23>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56
<표 24> 방송사별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56
<표 25>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57
<표 26> 방송사별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57
<표 27> 전체 문장 수	58
<표 28>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59
<표 29>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60
<표 30>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61
<표 31>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62
<표 32>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63
<표 33> 실명 취재원 수	64
<표 34> 익명 취재원 수	65
<표 35>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66
<표 36>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67
<표 37>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68
<표 38> 무주체/무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69
<표 39>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수	70

<표 40>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71
<표 41> 과어휘 수	72
<표 42> 방송 3사의 국어 측면 평균	74
<표 43> 방송 3사의 저널리즘 종합	76

그림 목차

<그림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34
<그림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35
<그림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36
<그림 4> ‘갓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37
<그림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38
<그림 6> 시점 혼돈 표현 수	39
<그림 7> ‘[명사]+~중이다’ 식의 표현 수	40
<그림 8> [수사 + 명사] 표현의 수	41
<그림 9> 동의 중복어(결말표현) 수	42
<그림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43
<그림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44
<그림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45
<그림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46
<그림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47
<그림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48
<그림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49
<그림 17> 기사 주제	57
<그림 18> 전체 문장 수	58
<그림 19>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59
<그림 20>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	60
<그림 21>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61
<그림 22>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	62
<그림 23>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	63
<그림 24> 실명 취재원 수	64
<그림 25> 익명 취재원 수	65
<그림 26>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66
<그림 27>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67
<그림 28>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68
<그림 29> 무주체/무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69
<그림 30>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수	70
<그림 31>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71
<그림 32> 과어휘 수	72
<그림 33> 방송 3사의 국어 측면 평균	74
<그림 34> 방송 3사의 저널리즘 측면 평균	77

연구결과 요약

방송 3사가 가장 많이 범한 국어 측면 오류는 불필요한 ‘~에 대해’의 사용으로 평균적으로 뉴스 당 0.52개를 사용했다. 즉, 2번의 방송 뉴스에서 1번꼴로 등장한 셈이다.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에 대해’의 사용이 뉴스 당 평균적으로 KBS 0.53회, MBC 0.56회, 그리고 SBS 0.47회로 가장 자주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국어 측면의 오류는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42회), [수사+명사] 표현의 사용(.23회) 등의 순이었다.

방송 3사에서 가장 적게 등장한 국어 측면 오류는 사전에 없는 외국어의 사용으로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0회 등장해 방송 3사의 뉴스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와 SBS의 평균값은 0.00회로 나타난 반면, MBC는 0.01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게 등장한 국어 측면의 오류는 불필요한 ‘~에 의해’의 사용(.02회), 시점 혼돈 표현의 사용(.03회), 불필요한 행정문투 및 보도자료 식 표현의 사용(.04회) 등이었다.

한편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9년에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방송 3사의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의 사용은 2007년 뉴스 당 평균적으로 0.75회 그리고 2009년 0.88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에 대해’의 사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 연도별로 보면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의 사용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의 사용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0.20회 이하로 사용된 반면, 불필요한 ‘~에 대해’의 사용은 매년 0.50회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연도별 변화가 뚜렷한 유목으로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역시 2007년과 2009년이 그 이전 해에 비해 발견 빈도가 비교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필요한 ‘~에 대해’의 사용 이외에는 대부분의 유목의 평균 사용이 0.50회 이하로 나타났고, 특히 7개 항목은 평균 0.10회 이하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국어 측면에서의 방송뉴스의 언어 사용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 3사 뉴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기사가 154개로 가장 많았고(18.3%), 다음으로 문화 기사가 102개(12.1%), 경제 기사 82개(9.8%), 비리 기사 75개(8.9%), 정치 기사 67개(8.0%), 북한 및 국방 기사 65개(7.7%)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가장 적게 등장한 기사는 교육 기사로 총 15개에 불과했으며(1.8%), 다음으로 과학기술 기사 16개(2.1%)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기사 25개(3.0%) 등이 뒤를 이었다. 각 방송사 별로 살펴보면, 역시 사회 기사가 가장 많았다(KBS 21.1%, MBC 16.8%, SBS 17.1%). 다만 사회 기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30회 이상 보도되었으나 2007년에는 15회만 보도되었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토대정보가 확인된 기사는 모두 812개로 나타났으며(96.7%), 확인되지 않는 기사는 28개에 불과했다(3.3%). 즉 20개의 기사 가운데 약 19개꼴로 토대정보가 확인된 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MBC의 미확인 뉴스가 모두

14회로 KBS(5회)와 SBS(9회)에 비해 자주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만 10건이 발견되었을 뿐,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5회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 제목에 직접인용구가 사용된 경우 총 840개의 기사 가운데 127개(15.1%)로 나타났다. 즉 약 6개의 기사 가운데 1개꼴로 방송 뉴스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 방송 뉴스 기사의 제목에는 직접인용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인용구가 사용된 127개의 기사 가운데 제목과 본문 간 직접인용구가 일치하는 기사는 70개(55.1%),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기사는 57개(44.9%)로 조사되어 절반이 조금 넘는 기사에서 직접인용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53.2%)와 MBC(51.2%)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KBS(28.2%)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일치도의 경우 2003년에 감소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하락했다.

방송 3사는 방송 뉴스를 제작할 때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직접인용과 관련하여 실명 개인을 직접인용한 문장 수의 평균은 1.69개 그리고 익명 개인을 직접인용한 문장 수는 평균 0.49개로 나타나, 실명 개인을 익명 개인에 비해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약 3배 정도 많았다. 한편, 전체 문장수와 실명 및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경우 연도별, 방송사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취재원의 경우 뉴스 당 2.03개 그리고 익명 취재원은 0.66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방송 3사는 실명 취재원을 더 많이 이용했으며, 실명 취재원을 적시한 문장 역시 평균 2.81개로 익명 취재원을 적시한 문장 0.78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실명 및 익명 취재원 수의 경우 방송사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실명 취재원 수는 2003년 증가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고, 익명 취재원 수는 2007년 일시 증가를 제외하곤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문장은 평균 0.59개로 무주체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문장의 평균 0.53개와 엇비슷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MBC가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70개) 및 무주체 주관적 술어(.73개) 사용이 많았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는 2005년 감소 이후 2007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 무주체 주관적 술어는 2005년과 2007년 증가 이후 2009년 다소 감소했다.

그 밖에, 신문식의 무리한 조어를 사용한 문장의 평균은 0.13개,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이 들어간 문장의 평균은 0.04개, 그리고 과어휘 수의 평균은 0.06개로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 취지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방송뉴스 텍스트(기사문장)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은 국어학 관점과 저널리즘 관점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됐다. 우선 국어학 관점에서 보면, 방송뉴스가 대중의 일상적 언어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윤재홍, 2005). 방송기자가 전달하는 단어와 문장은 유행어를 만들어낼 만큼 과급력이 크다. 비표준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사용 관행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속어, 비문(非文)의 사용이나 무리한 조어(造語) 등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특히 공중과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법에 맞는 올바른 표현과 표준어를 국가적 언어로 확산시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강형철, 2004; 김현주, 2006). 공중과 방송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1990년대 초부터 학계에서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김성규·최혜원·한성우, 2008; 임태섭, 2003; 차재은, 2003; 최진근, 1993a; 최진근 1993b). 방송사들도 언어연구 조직을 만들어 표준말, 즉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뉴스에 사용되는 언어를 국어학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방송뉴스는 국어 문장인 동시에 기사문장이다. 기사로서의 글에는, 여타의 글처럼 언어(국어) 측면에서의 준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측면에서의 엄격한 준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사문장은 사실정보에 기초해야 하며, 사실정보와 의견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사실정보든 의견정보든 소스(source)를 밝히고 인용해야 하며, 기자의 주관적 표현을 배제해야 한다. 이처럼 방송뉴스는 기사문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덕목을 신중히 고려한 채 작성돼야 한다. 같은 기사문장이라 하더라도 신문과 비교할 때, 방송뉴스는 대중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치므로 더 엄격한 저널리즘 잣대로 평가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임태섭, 1993). 방송뉴스는 방송 일반에 주어진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방송사 안팎에서 수행된 방송뉴스 연구는 이런 ‘질 높은 저널리즘’을 지향하려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예를 들어, 국립 국어원·MBC, 2005; 김희진·정희창·박용찬, 2007; MBC, 2002).

2) 연구 문제

방송뉴스 텍스트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어학 관점의 연구를 보면, 방송뉴스의 언어, 표현, 문장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에세이는 많은 반면에 내용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저널리즘 관점의 연구는 신문기사에 대해 인용과 취재원 적시를 중심으로 수행된 적이 있을 뿐(박재영·이완수, 2007) 방송뉴스에서는 전무하다.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방송뉴스 언어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위기 논란이 근본적으로 뉴스 문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빈도와 강도를 감안할 때, 방송뉴스를 저널리즘 글쓰기(journalistic writing)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국어학 관점이든 저널리즘 관점이든 방송뉴스 텍스트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방송뉴스 텍스트의 어떤 측면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방송뉴스의 현재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방송뉴스 텍스트의 문제점을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어학 관점과 저널리즘 관점의 선행연구에 언급된 변인을 최대한 포함시키고, 2000년대 약 10년간의 역사적 변천까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아래의 <연구문제 1>은 국어학 관점의 분석으로서 “방송뉴스가 올바른 국어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며, <연구문제 2>는 저널리즘 관점의 분석으로서 “방송뉴스가 올바른 기사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국 언어와 표현의 측면에서 방송뉴스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문제 1: 방송뉴스는 국어 문장으로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런 문제점은 방송사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방송뉴스는 기사 문장으로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런 문제점은 방송사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3) 기대효과

이 연구는 방송뉴스가 일반적인 글로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또 기사문장으로서 저널리즘 규범에 얼마나 충실한지 알려줄 것이다. 나아가 방송뉴스가 국어학 그리고 저널리즘 관점에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는 방송뉴스가 텍스트 차원에서 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어떠한 역기능을 했으며, 또 어떠한 순기능을 했는지 짐작하게 해줄 것이다. 이 연구처럼 방송뉴스를 국어학적 관점과 저널리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했던 예는 아직 없다. 또 이 연구는 방송뉴스 완성도의 역사적 변천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연구는 방송뉴스 텍스트를 단어와 문장 단위로 분석하므로 방송기자들이 뉴스 리포팅 과정에서 잘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오류와 잘못된 관행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방송기자들이 자신의 리포팅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바람직한 리포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유목들은 방송기자들이 뉴스 원고 작성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할만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방송뉴스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추상적이고 현상적인 관찰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방송뉴스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뉴스의 개별 단어와 문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방송의 신뢰도 하락과 공정성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이 연구는 방송뉴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다소 공허하게 비쳐진 학계의 방송 비판론이 보다 정교해지고, 따라서 방송업계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연구 검토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어학 관점과 저널리즘 관점의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에세이 형식의 연구와 내용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학 관점의 연구

국어학 관점의 연구는 방송뉴스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다 좋은 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제언을 내놓았다(예를 들어, 박용찬, 2005; 박용찬·이대성, 2003; 윤석홍, 2005). 그간의 선행연구는 어휘, 표현, 문장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어휘 측면

① 잘못된 한자어

‘납득’, ‘식량’, ‘고수부지’처럼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여 국어를 오염시키는 뉴스문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김희진·정희창·박용찬, 2007; 임태섭, 1999; 최진근 1993a).

② 외래어

‘캐치 프레이즈’, ‘클라이맥스’, ‘프렌차이즈’ 등 영어를 발음 그대로 쓰거나, ‘콤비’, ‘인프레’ 등 일본식 영어를 사용하는 외래어 남용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희진·정희창·박용찬, 2007; 임태섭 1999, 2003c; 최진근 1993a). 이런 연구들은 우리말로 바꿀 말이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전문성을 돋보이기 위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③ 동의어 중복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여러 번 쓰거나 같은 뜻의 한자와 우리말을 반복하여 쓰는 현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최진근 1993a). ‘깊은 심호흡’, ‘깊은 숙고’, ‘달리기 경주’, ‘더 가중하여’ 등은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다.

④ 일본식 조사

우리말에서 관형격 조사로만 쓰이는 ‘의’를 용법이 다양한 일본의 ‘노(の)’의 자리에 사용하는 경향을 지적한 연구(임태섭 1999)가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비속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땡땡이’, ‘고자질’, ‘꼬리를 치다’, ‘뿔가다’, ‘영계’, ‘못먹어도 고’ 등과 같이 부도덕하게 느껴지거나, 특정집단에 피해를 입히는 말, 비속어나 은어 등의 사용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최진근, 1993a).

(2) 표현 측면

기사 문장의 표현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수동태나 명사화한 표현에 주목했다. 우리말은 능동태나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사문이 외래어와 행정 어투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임태섭 1999).

① 수동태 문장

기사 문장의 표현을 다룬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문장을 수동태로 사용하

는 관행이다(임태섭 1999). 이중에서 자동사를 피동사로 잘못 쓴 경우는 ‘일반화되다’, ‘구체화되다’ 등이 있으며, 원래 피동사인데 피동형을 중첩적으로 쓴 경우는 ‘보여지다’, ‘쓰여지다’ 등이 있다. 또 자동사로 바뀌어야 할 타동사를 피동사로 잘못 쓴 경우는 ‘키워지다’(올바른 표현은 ‘자라다’), ‘식혀진’(올바른 표현은 ‘식은’) 등이다.

② 명사화한 표현

하나의 절을 명사나 명사구로 바꾸어 쓰는 관행이 이 경우인데, 보통 ‘의’를 붙여서 사용한다. 간략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의미가 추상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이다(임태섭, 1999). 전형적인 예는 ‘대선에서의 압승을 위해’, ‘광고 수준 늘리기의 기회’ 등이다. 명사화함으로써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충격 도발 요청을 한 것으로’(올바른 표현은 ‘충격 도발을 요청한 것으로’),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올바른 표현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등이 그런 예다.

(3) 문장 측면

기사를 문장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와 시점의 혼돈이 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① 주어-술어 불일치

방송뉴스 문장 중에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주어의 행위가 될 수 없는 술어를 술어로 사용한 경우가 더러 있다(최진근 1993b).

② 시점상의 혼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진행의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최진근 1993b). 대표적인 예는 ‘맑고 있습니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이다.

국어학 관점에서 방송뉴스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연구의 다수를 차지한 어휘에 관한 연구가 특히 그러한데, 이들은 표준어를 준수하는지, 외국어나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지에 주로 주목했다. 표현이나 문장에 주목한 연구도, 정확한 의미전달을 방해하는 표현과 문장을 지적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일본식 표현 등의 사용을 집중 검토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의미전달이라는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의 동의와 인정을 의미하는 일반성을 무시한 채 규범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차재은, 2003; 이경우, 2006). 사실, 고유의 한자어와 구별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나 대체할 말이 마땅치 않은 새로운 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이른바 ‘말다듬기’에 일반인들을 자문역으로 참여시키는 등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용찬·이대성, 2005). 이는 언어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감안하여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차재은, 2003). 이 연구도 국어 어휘와 표현의 순수성을 중시하지만, 방송뉴스가 의사소통 기능에 충실한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감각에 부합하는지 등을 또 다른 기준으로 삼았다.

2) 저널리즘 관점의 연구

방송뉴스의 언어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은 기사작성의 원칙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다

양한 하위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권영설, 2000; 최영재·홍성구, 2004; Westerstahl, 1983). 이 연구는 이런 기준 중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객관성은 기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함(사실성)은 물론이고, 뉴스문장에서 기자 개인의 의견, 선호도, 감정을 배제해야 함을 뜻한다(Mindich, 1998). 사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뉴스가 전달하는 세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기자 직업윤리의 기초와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송용회, 2007b). 공정성은 “담론의 영향력에 포함되는 주체의 목소리가 담론 구성과정에 정당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준웅, 2004). 사안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었는지, 언어나 관점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묻는 ‘불편부당’의 개념(Westerstahl, 1983)도 공정성 개념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두 개념 가운데 하나를 내세워 포괄적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포함되는 종속적 위치를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뉴스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로 공정성을 제안하고, 하위 개념으로서 객관성을 제시하는 연구(강명구, 1989; 김성환, 2005; 임태섭, 1993; Westerstahl 1983)가 있는가 하면, 이와 정반대로 객관성을 뉴스의 가장 큰 가치로 제시하는 연구(송용회 2007)도 있다. 이런 연구들은 두 가지 가치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단지 최상위 가치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송법 6조 1항에 뉴스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동시에 제시된 점, 그리고 방송사의 내부 윤리강령에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지켜야할 원칙으로 정확성이나 공정성 등의 개념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MBC 방송강령 2008).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학자들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자들의 객관성 구현을 보편적 실체가 있거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된 의례로 치부하거나, 보도 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비판한다(남재일, 2004; Tuchman, 1972). 기자들이 공정성을 산술적 균형과 중립 보도로 단순화하고 있어서 공정성 개념을 절차적인 것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강명구 1989; 최영재·홍성구, 2004).

하지만, 이런 비판적 주장을 따른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은 철저하게 인식론이나 존재론 차원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이지 실천적으로 달성 가능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준웅(2004)의 주장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 내지 준칙으로 파악하여 기사를 쓰는 방식, 즉 실천적 양태에 주목했다. 기사 속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용(quotation)하고 적시(attribution)하는 것은 그런 준칙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박재영·이완수, 2007; Brooks et al., 2002; Fedler et al., 2005; Itule & Anderson, 2003; Rich, 1994).

공영 방송의 또 다른 책무는 다양성, 즉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를 통한 사회 통합 기능이다(강형철, 2006). 특정 계층의 생각을 반영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가미되거나,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위기감과 의견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은 공영 방송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임태섭 1999; 황치성, 2008).

(1) 객관성 및 정확성

① 피동형 서술어 또는 무주체 수동태 문장

문장을 능동형으로 쓰면, 기자들은 주체를 명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기자들은 이

를 피하면서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동형의 서술어로 문장을 종결짓는 경우가 많다(박재영·이완수, 2007; 송용회, 2007). 대표적인 예는 ‘~라는 지적이다’, ‘~로 추정된다’, ‘~로 풀이된다’, ‘~로 예상된다’ 등이다. 이런 표현들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적하거나, 추정하거나, 풀이하거나, 예상하는’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자가 취재에 근거했다라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독자들은 기자가 가상의 정보를 삽입했거나 기자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② 유사 인용 또는 기관 의인화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주체인데도 주어로 인용하거나, 비생물 주체의 행동을 기자가 본 것처럼 서술하는 잘못된 관행도 있다(송용회, 2007). 이는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서 취재하여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종종 사용된다. ‘검찰 일부에서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등은 그런 예이다.

③ 과잉 일반화

단일 인물이나 소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경우도 발견됐다(송용회, 2007). 이런 문장은 기사의 앞부분에 집합명사를 쓰고, 그 뒤에 근거제시 형태로 특정 인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예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경제 변호사는…’, ‘학계에서는… 김 교수는…’ 등이다. 즉 기사의 앞부분에 ‘전문가들’, ‘학계’라는 집단을 통칭한 다음에 특정 인물을 인용하여, 특정 인물의 의견이 집단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④ 직접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큰따옴표로 묶인 직접인용구 다음에 나오는 최종 술어가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예는 ‘[“~”라고] 주장했다’, ‘강조했다’, ‘요구했다’, ‘의견을 제시했다’, ‘희망했다’, ‘열변을 토했다’, ‘애원했다’, ‘넌지시 말했다’ ‘웃었다’, ‘미소 지었다’, ‘한숨지었다’ 등이다. 이런 표현은 저널리즘 글쓰기 준칙에 맞지 않거나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감정개입적인 표현들이다. 직접인용구 다음에 나오는 최종 술어는 원칙적으로 ‘했(었)다’, ‘말했(었)다’, ‘밝혔(었)다’, ‘덧붙였다’ 등 4개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박재영·이완수, 2007).

⑤ 제목의 직접인용구

직접인용구는 기사에 제시된 여러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기사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재영·이완수, 2007).

(2) 공정성

① 차별적 어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있는데도, 특정한 직업이나 계층이 즐겨 쓰는 어휘, 은어, 전문용어를 방송뉴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현실 인식을 시청자에게 강요할 위험성이 있다(김영임, 2005; 임태섭, 1999, 2003a). ‘체벌’을 ‘사랑의 매’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예다.

② 정치적 편향, 가치판단이 개입된 언어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관점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어휘도 다수 발견됐다. ‘공권력’, ‘민중’, ‘날치기’, ‘실력저지’, ‘춘지’ 등이 그 예인데, 이런 어휘들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념, 태도, 의도 등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위험성이 있다(김영임, 2005;

임태섭, 2003a).

③ 권위주의 시대 언어

이는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는 왕조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어휘들인데, ‘대권’, ‘가신’, ‘관리가 녹을 먹는’, ‘진언’, ‘간택’ 등이 그 예다(임태섭, 1999, 2003e).

(3) 다양성

최상급 표현, 강렬한 언어, 극단적인 표현, 파국식 표현도 자주 발견됐다(임태섭, 1999, 2003f; 황치성, 2008). 이런 표현들은 시청자에게 과도한 위기감을 주고 의견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 예는 ‘사상최악의 물난리’, ‘사후조치 전무’, ‘쓰레기 대란’, ‘통신 대란’, ‘대반란’, ‘최정상’, ‘총체적 난국’ 등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방송뉴스의 구성요소 중에서 영상과 발음 부분을 제외하고, 텍스트로서 방송뉴스, 즉 기사문장을 분석했다.

1) 분석 매체와 분석 뉴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방송된 공중과 3개사(KBS, MBC, SBS)의 저녁 종합(메인)뉴스의 내용을 분석했다. 공중과 방송사들은 타 시간대에도 뉴스를 방영하지만, 저녁 시간대에 방송하는 종합뉴스가 가장 종합적이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김경모, 2003). 여타 시간대의 뉴스는 메인뉴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메인뉴스만 분석해도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국립국어원·MBC, 2005; 윤재홍 2005). 샘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인뉴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거나 주요 정보만 전달하는 단신은 제외했으며 1분 이상의 시간을 유지하는 ‘리포트’ 기사만 분석했다.

2) 표본 추출

공중과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에 방송되는 리포트는 하루에 20~25개로 연간 약 7,000개에 이른다. 방송사의 10년간 뉴스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단위 구성 추출방법(constructed week sampling)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Riffe, Aust, & Lacy, 1993). 주단위 구성 추출방법은 1년 이상 긴 기간의 뉴스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다(Lacy et al., 2001). 다소 임의적인 방법이지만, 2년마다 한 해씩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10년 동안 뉴스의 변화의 흐름을 추론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박광순, 2008). 따라서 이 연구는 2001~2009년에서 격년으로 5년분(2001, 2003, 2005, 2007, 2009년)을 뽑았다.

신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은 1년치 기사의 특징을 보기 위해 월~토요일이 모두 포함되는 2주(12일치) 분의 기사를 추출했다. 일요일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러나 방송은 일요일에도 뉴스를 내보내므로 일~토요일이 모두 포함되는 2주 14일분의 기사를 뽑는 게 적합하다(Riffe et al., 1996). 따라서 이 연구는 매년 월별, 요일별로 14일분을 추출했다.¹⁾

표본으로 선정한 각 날짜의 기사 20~25개 중에서 4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문 분석이 흔히 1면을 대상으로 하듯이, 방송뉴스도 그날의 대표성 있는 기사 몇 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문 1면에 기사 약 4개가 게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뉴스도 그 정도의 기사를 추출했다. 즉 방송뉴스도 신문처럼 하루에 4개 정도의 기사를 분석하면 전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문 1면은 종합면으로서 상이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만 방송뉴스에는 신문 1면과 같은 개념이 없다. 방송의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첫 4개의 뉴스를 추출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한 관련기사가 다수 포함되어서 오히려 샘플이 왜곡

1) 추출된 날짜와 요일은 2001년의 1/5(금) 2/1(목) 2/28(수) 3/27(화) 4/23(월) 5/20(일) 6/16(토) 7/13(금) 8/9(목) 9/5(수) 10/2(화) 10/29(월) 11/25(일) 12/22(토), 2003년의 1/2(목) 1/29(수) 2/25(화) 3/24(월) 4/20(일) 5/24(토) 6/20(금) 7/17(목) 8/13(수) 9/9(화) 10/6(월) 11/2(일) 11/29(토) 12/26(금), 2005년의 1/8(토) 2/4(금) 3/3(목) 3/30(수) 4/26(화) 5/23(월) 6/19(일) 7/16(토) 8/12(금) 9/8(목) 10/5(수) 11/1(화) 11/28(월) 12/25(일), 2007년의 1/7(일) 2/3(토) 3/2(금) 3/29(목) 4/25(수) 5/22(화) 6/18(월) 7/15(일) 8/11(토) 9/7(금) 10/4(목) 10/31(수) 11/27(화) 12/24(월), 2009년의 1/6(화) 2/2(월) 3/1(일) 3/28(토) 4/24(금) 5/21(목) 6/17(수) 7/14(화) 8/10(월) 9/6(일) 10/3(토) 10/30(금) 11/26(목) 12/23(수)일이다.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신문 1면처럼 다양한 방송뉴스를 추출하기 위해 하루 뉴스 중에서 특정 순번의 뉴스를 표본으로 뽑았다.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아이템이 약 24개인 점을 감안하여(김은주, 2003) 시간 순서대로 1번, 8번, 15번, 그리고 맨마지막 아이템을 추출했다. 단신 기사가 추출 대상 순번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를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단신 기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길어도 짧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방송사당 280개(5년X14일X4개 뉴스), 방송 3사를 모두 합하면 총 840개의 뉴스를 추출했다.

뉴스는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추출됐다.²⁾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된 뉴스 텍스트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에는 뉴스 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로 방영된 뉴스의 내용을 듣고서 텍스트를 채워 넣었다.

3) 코딩

(1) 전체 가이드라인

방송뉴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각종 편집용어 중에서 INT, <인터뷰>, <녹취>, SYN 등은 현장에서 가져온 음성이나 인터뷰를 표시하는 부호이다. 또는 이런 표시 없이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처럼 이름만 표시된 것도 현장 음성이나 인터뷰인데, 화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라이브 인터뷰’는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 여기에서 국어학 또는 저널리즘 관점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기자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한편 방송뉴스 첫머리에 나오는 앵커 멘트는 국어학 관점의 유목 분석에는 포함하고, 저널리즘 관점의 유목 분석에는 제외했다. 앵커 멘트는 진행자의 말이므로 국어학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분석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2) 국어학 관점의 코딩 유목³⁾

주어가 없는 문장 수

(주어 없이) ~라는 지적이다, 입장이다, 반응이다, 분석이다, 생각이다, 전망이다, 보도다, 계획이다, 자평이다, 확신이다, 의문이다, 소식이다, 평가다, 설명이다, 후문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문장의 수를 기록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와 문제점 및 올바른 표현(괄호 안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대학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누가 지적했는지, 지적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주어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대통합민주신당은 행자위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주장이다.

→ ‘주장이다’의 주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주어가 있는데도 서술어를 ‘주장한다’가 아닌

2) KBS는 news.kbs.co.kr, MBC는 imnews.imbc.com, SBS는 news.sbs.co.kr.

3) 저자들은 국어학 관점의 유목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뿐 아니라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기자들인 박선희, 배은미, 이창환이 2008년 펴낸 ‘신문 글 바꾸기’를 참조했다. 특히 배은미 기자의 자문을 별도로 받으면서 ‘신문 글 바꾸기’에 서술된 사례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이 연구의 원고에 요약하여 재인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주장이다’라고 써 결과적으로 비문을 만들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한다)

* 회장선출 계획안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인데 문법적으로 [주어+서술어]로 호응을 못하고 있다. (계획안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후생노동성은 화장장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선박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성과 함께 3월 말까지 안전 장치와 운영 방법을 정밀하게 검토해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후생노동성은…확정한다는 방침이다’가 큰 틀인데, ‘후생노동성’과 호응하는 서술어는 ‘확정한다’이다. ‘방침이다’의 주어가 없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확정할 방침을 세웠다)

*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 정부의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 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 버냉키 의장은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사태가 터진 이후 여름 휴가도 취소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버냉키 의장은…출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가 이 문장의 큰 틀이다. ‘후문이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버냉키 의장은…출근한다고 한다/출근한다는 말도 있다)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다음의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a) 주어 없이 서술어만 있는 문장

* 대전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동구 가오지구. 이곳 가오중학교 인근에 최근 복합영화관이 들어서려다 중단됐다. 관할 교육청이 “복합영화관은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며 막았기 때문이다.

→ ‘복합영화관’이 주어이고, 서술어가 ‘들어서려다’와 ‘중단됐다’ 두 개다. ‘들어서려다’와는 호응하지만 ‘중단됐다’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최근 이곳 가오중학교 인근에 복합영화관을 세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 이 당선인 측은 6일경 최초로 6배수 정도로 후보를 압축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순위로 올라왔고,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등이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어인데 서술어는 ‘올라왔고’와 ‘…등이었다’ 2개가 연결되어 있다. ‘등이었다’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두 개나 붙은 문장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순위에 올랐고,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등이 후보 명단에 들었다)

b) 주어는 있는데 서술어가 없는 문장

* 또 이 보고서는 중국 정책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등 버블 예방을 위한 긴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펴나가고 있는 점도 과거 일본과는 다른 점으로 꼽혔다.

→ ‘이 보고서는’이 주어인데 ‘꼽혔다’가 서술어로 쓰여서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을 살리려면 서술어는 ‘다른 점으로 꼽았다’가 되어야 하고, ‘꼽혔다’를 살리려면 ‘이 보

고서는’을 빼야 문장이 성립한다. (중국 정책 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다른 점으로 꼽혔다./또 이 보고서는 중국 정책 당국이…다른 점으로 꼽았다)

* 인수위 측은 총괄조정 역할을 할 공공 디자이너 선정이 프로젝트 성패의 열쇠로 보고 있다.

→ ‘인수위 측은’과 ‘디자이너 선정’이 두 개의 주어와 있고 ‘보고 있다’가 서술어인데, 호응하는 것은 ‘인수위 측’이므로 ‘디자이너 선정’이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인수위 측은 …디자이너 선정을…열쇠로 보고 있다/인수위 측은…디자이너 선정이…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지만 공기업 이전 문제는, 해당기업 노조의 반발은 물론 현 정부가 공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효율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영화 문제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공기업 이전 문제’는 ‘혁신 도시 추진이’ ‘관측이’가 각각 주어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놓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뜻을 풀어보면, ‘공기업 이전 문제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상충된다’이다. ‘혁신도시 추진이’는 ‘맞을지도 모른다’와, ‘관측이’는 ‘나오고 있다’와 각각 호응한다.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각각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켜야 올바른 문장이다. (하지만 공기업 이전 문제는…민영화 문제와 상충된다. 혁신도시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관측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c)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 [앞 문장은 ‘미군은…’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또, 치안 불안의 원인이기도 했던 구호품을 헬기에서 투하하던 방식을 개선해 직접 골고루 분배해주기로 했습니다.

→ 앞 문장의 미군이 이 문장의 주어와 되더라도 주체와 목적어가 불분명하다. (치안 불안의 원인이던 구호품 분배 방식을 개선해, 헬기에서 투하하지 않고 직접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 군사전문가들은 직격 어뢰보다는 감응식 어뢰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지나친 명사화 표현인 동시에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군사전문가들은 직격 어뢰보다는 감응식 어뢰가 공격했을 가능성에)

* 정부 여당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9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정부 여당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9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앞 문장은 ‘여드름…’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일찍 찾아온 사춘기 때문인데, 자칫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 (여드름은 일찍 찾아온 사춘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을 그대로 두면, 자칫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 한국으로의 수출에 관세상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 (한국은 중국 경제가 시장 경제라는 사실을 인정해, 관세를 낮추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앞 문장은 ‘북한은…’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이란과 함께 국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북한이 이란과 함께 국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

다)

d) 기타 유형

* 중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 ‘주택을 강화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 수출을 늘려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협정을 강화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국회로 쏠려있습니다.

→ 실체가 없는 주어이다.

*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 실체가 없는 주어이다.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사례는 배워지다, 말해지다, 만들어지다, 길들여지다, 고쳐지다, 세워지다 등이다.

a) 자동사를 피동사로 쓴 경우: 일반화되다, 구체화되다

b) 원래 피동사인데 피동형을 중첩적으로 쓴 경우: 보여지다, 쓰여지다

c) 자동사로 바꿔야할 타동사를 피동사로 쓴 경우: 키워지다, 식혀진

*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져 물건을 담기에도 불편하고 쌓을 수도 없었던 당시 일반적인 가방에 비하면 그의 트렁크는 획기적이었다.

→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추징한 국세청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국제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 (국세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국제심판원이 결정했다)

* ‘상록수’의 집필실인 ‘필경사’거 있는 충남 당진군에 심훈문학관이 세워져 원고가 그곳에 놓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심훈문학관 서고 그곳에 원고를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제는 문학관이 언제 세워질지 알 수 없다는 것.

→ (문제는 문학관을 언제 지을지)

*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이고 ‘노는 것이 악’인 가치관에 길들여진 구인류의 시각으로 볼 때 맘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다.

→ (가치관에 길든)

‘갓다’를 영어식으로 잘못 표현한 수

* 중앙종교교와 중앙교우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중학교 교정에서 ‘한국스카우트 발상지비 제막식’을 가졌다.

→ (제막식을 열었다/개최했다)

* ‘친박연대’는 영남과 수도권 일보에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

*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은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 등 대중적 지지를 가진 정치인의 수도권 선전 및 5% 안팎의 정당 지지표를 얻어 비례대표를 원내에 입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의...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주한 외국기업협회회원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와 외국기업 간 정책 간담회의 정례화를 요청받고 “무역투자진흥회의 기업들의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표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 펀드 환매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 처음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즉각 현장에서 출동했지만 멧돼지는 산 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오전 11시 45분경 다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신고를 접수했다)

* “인구 47만 명인 나라인데 사용되는 언어는 10개 이상?”

→ (인구 47만 명인 나라인데 사용하는 언어는 10개 이상?)

* 국토해양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현장에서 1공고 기공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동해중부선은 경북 포항~강원도 삼척 165.8Km다. 17개 공구별로 공사가 이뤄져 2014년 까지 단선철도로 완공될 예정이다.

→ (17개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해 2014년까지 단선철도로 완공할 예정이다)

* 그의 노선에 대한 강경파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그의 노선을 강경파들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는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이 재고되길 바란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 (“달라이 라마가 중도 노선을 재고하길 바란다”)

* 국내 국도에 건설될 터널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가지산터널(총 길이 4.5Km·사진)이 24일 오전 8시 개통됐다.

→ (국내 국도에 뚫린 터널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가지산터널이 24일 오전 8시 개통했다)

시점 혼돈 표현 수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아래 b)는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유목에도 해당하고 ‘시점 혼돈’ 유목에도 해당하므로 두 유목에 모두 코딩했다.

a)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진행의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쓴 경우

* 대회가 열리고 있다.

→ (대회를 열었다. 대회가 계속되고 있다)

b) [과도한 피동태+ 시점 혼동]의 경우

* 대화를 열었다.

→ (대화를 시작했다)

‘[명사]+ ~중이다’ 식의 표현 수

* MS는 먼저 송도의 학교 회사 거리 등 곳곳을 정보기술(IT) 인프라스트럭처로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라이프(U-Life)’를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한 후 장기적으로 송도에 자사의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검토하고 있다)

* ‘정치의 가장자리에서’(길), ‘불화’(ㄴ), ‘무지의 스승’(궁리) 등도 현재 번역 중이다.

→ (번역하고 있다)

*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경북도기념물 86호)는 생가보존회와 구미시가 관리 중이다.

→ (관리한다)

*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국회 한정기념관에서 전국위원회에서 공식 중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공석인)

*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혁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대가’에서 ‘혁신의 마술사’로 변신 중이다.

→ (변신하고 있다/변신했다)

* 뉴스위크에 따르면 횡령 사건으로 2006년부터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황씨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사석에서 몇 차례 신씨에게 제의해 신씨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며 “사진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신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 (수감된)

[수사+ 명사] 표현의 수

명사 다음에 수사가 오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a) ‘대부분의 사람들은’

b) ‘세 개의 사과’

*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시인했다.

→ (이 후보자는 의혹을 대부분(대체로) 시인했다)

* 대한상익은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 (연수원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정부는 또 4개 정유사와 전국 1만 2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다음달부터 주요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또 정유사 4곳과 전국 주유소 1만2000곳을 대상으로)

* 외인부대의 질주에 기가 질린 5명의 당내 추천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 (당내 추천 심사위원 5명은)

* 그러나 공심위 대변인인 박경철 위원은 “7명의 외부 위원은 박 위원장의 의견에 합의했고,

→ (외부 위원 7명은)

* 박 위원은 또 “억울한 한 마리의 양이 생길 수 있지만 큰 뜻을 위해서는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대의멸친(大義滅親)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억울한 양이 한 마리 생길 수 있지만...”)

* 또 이날에만 약 1만명의 고객이 모두 10만 페이지의 아이리더 기사를 읽은 것을 집계됐다.

→ (또 이날에만 고객 약 1만 명이 아이리더 기사 총 10만 쪽을)

* 유엔 소속 헬기가 3일 기상 악화로 네팔의 동부 산지에서 추락해 10여 명의 탑승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AFT통신과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 (탑승자 10여 명이 모두)

* 옥션은 18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다.

→ (옥션은 회원이 1800만 명인 국내 최대)

동의 중복어(겹말표현) 수

* 거의 대부분의

→ (‘거의’ 불필요)

* 진위 여부를

→ (‘여부’ 불필요)

* 상반기(1~6월) 중에

→ (‘중’ 불필요)

* 20~60분 정도가 좋다

→ (‘정도’ 불필요)

* 운동은 20분 이상은 해야

→ (‘은’ 불필요)

외국어 수

사전에 없는 것만 카운트했다. 프랜차이즈, 클라이맥스, 캐릭터 등은 사전에 있는 표현이다.

일본식 복합조사 수

‘~의’, ‘~적’ 등의 조사가 붙은 표현들을 수를 기록했다.

* 범죄와의 전쟁

→ (범죄와 전쟁)

*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 (저마다 타고난 소질)

* 법적 도덕적 잣대

→ (법과 도덕의 잣대)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a) ‘~의’를 사용하여 명사로 표현한 경우: 대선에서의 압승을 위해, 광고 수주 늘리기의 기회

b)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문장이 길어진 경우: 충격 도발 요청을 한 것으로, 채권단

과의 협의를 거쳐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 * 사의 표명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해’ 불필요)
- *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고삐도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 (‘에 대한’ 불필요)
- *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는
→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 * 당선자에 대해 소환을 필요로 할 정도의 혐의가
→ (당선자를 소환할 정도의 혐의가)
- * 범행을 시인한 4명에 대해서만
→ (범행을 시인한 4명만)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 * 보고 내용이 간부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고 내용을 간부들이 외부로 유출하면/유출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 스키타이-흉노-훈으로 이어지는 고대 유목 기마 민족은 정착문명에 의해 야만 혹은 주변문화로 취급됐다.
→ (정착문명은 스키타이-흉노-훈으로 이어지는 고대 유목 기마 민족을 야만 혹은 주변문화로 취급했다)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 * 미디어에서 작성한 문서는 PC로 옮겨서도 열람 및 편집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기 간 호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편집할 수 있다. 사용자가 편하도록 기기 간 호환성을 높은 것도(이) 특징이다)
- * 총선 출마를 위해 이달 초 사퇴한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노무현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 (총선에 출마하려고 이달 초 사퇴한)
- * 안전한 성화 봉송을 위해 नेपाल과 중국 정부가 성수기인 5월 초 에베레스트 등반로를 폐쇄하자 산악인 등의 반발도 거세다.
→ (또한 성화를 안전하게 봉송하려고 नेपाल과 중국 정부가)
- * 이들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대학교육 기회를 주고 지역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농복합시 등 지역 고교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농복합 등 지역 고교에도)
- * 창바 주식은 “추가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라싸 일대에 장갑차가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용인 전차는 배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창바 주식은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 * “대일 무역적자가 연간 300달러에 이르고 있으므로(4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 (방문을 계기로 적자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세우라)
- * 정부와 민간 경제계는 이 대통령의 방일 때 대일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일본 측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 (방일 때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하고자 양국간 협력을 일본 측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 * 전경련은 부품소재 분야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A)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 * 한서 우주항공은 “6월부터 7인승 기종을 한 대 추가하고, 9인승 비즈니스 제트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수송이나 혈액 수송 등을 위한 해외 취항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응급환자나 혈액 등을 수송할 해외 취항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다음의 세 가지(단어 6개)만 해당하며, 이들의 전체 수를 기록했다.

a) 실시, 시행

- * 청문 활동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 * 여러 개발단계를 거쳐 1981년 첫 시험비행을 실시했고 1982년에 첫 야간비행도 성공했다.
- (첫 시험비행을 했고)
- * 또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7월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전일제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주요 역사(驛舍)에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 (전일제로 확대하는 한편)
- * 수송 부문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가 확대 시행된다.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확대한다)
- * 서울시는 그동안 18개 구청에서만 실시하던 여권 발급 업무를 22일부터 관악, 금천, 도봉, 동작, 서대문, 성북, 양천 등 7개 구청에서도 실시한다.
- (구청에서만 하던...구청에서도 한다)
- * 통신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맞춰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 교역 금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도축세를 없애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 (도축장 구조조정도 한다)

* 횡성군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어르신 효축제’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 (확대하기로 했다)

*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달 실시하기로 했다.

→ (지도 점검을 매달 하기로 했다)

b) 조치, 결정

*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가입자에게 보상하겠다)

*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도 북한 마그네사이트 수입과 미국 기업의 북한 광업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

→ (대북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도)

* 필리핀에서 발생한 60대 한국인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이 법안은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한 것”이라며 “공화당 보수파가 북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년 단위의 계약직이었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무기계약(정규직)직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 (전환하기로 했다)

* 주무과장은 정규직 전화시점이 다가오자 전결로 박 씨의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마음대로 박 씨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폭력사태는 이런 중국의 공언을 전적으로 무색하게 했다. 중국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자국민들에게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절한 경고를 해야 한다)

* 국방부 관계자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c) 행위, 제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처럼 행정문투 유목(‘제고’)에도 해당하고 ‘~을 위해’ 유목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두 유목에 모두 코딩했다.

*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그룹 형태를 지주회사로 바꾸도록 종용했다. 지주회사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였다.

→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의 위험성도 살피고 협상력 제고를 미국 의회의 처리 상황 등을 봐가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 (협상력도 높이기 위해)

*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데 이견이 없다.

→ (효율성 높이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 유성구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제고뿐 아니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 문화·예술 분야 한류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처럼 식품 분야의 한류로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한 것처럼)

(3) 저널리즘 관점의 코딩 유목

기사의 주제

가장 두드러진(most dominant) 것으로 코딩했다. 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처럼 대형 사안은 소스를 기준으로 구별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에서 피해 장병 피쳐 스토리는 ‘인물’, 사건발생에 대한 설명이나 구조작업은 ‘사건사고’, 사고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 또는 남북관계에 대한 뉴스는 ‘북한/국방’ 등으로 코딩했다.

① 정치: 정당, 정치인, 정쟁, 선거

② 외교: 외교 관련 부처 정책, 전형적인 외교 사안, 국제관계, 대통령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한미 안보협의회의, 미군기지 협상, 독도문제, 신사참배, 중국 역사왜곡

③ 북한/국방: 통일/국방 관련 부처 정책, 북한 발언, 북핵 및 미사일, 북한 지원 및 금융제재, 남북자, 남북 정상회담 등

④ 경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정책, 국내외 금융, 산업, 시장, 생활경제(주로 가게 관련), 물가, 재테크, 부동산, 주식, 투자

⑤ 교육: 교육 관련 부처 정책, 초중등 교육, 대학교, 입시, 사교육

⑥ 보건복지: 보건복지 관련 부처 정책, 의료, 건강

⑦ 과학기술: 과학기술 관련 부처 정책, 정보통신, 환경

⑧ 문화: 문화 관련 부처 정책, 라이프스타일, 공연, 영화, 학술, 출판, 예술, 연예/엔터테인먼트, 여가, 미디어, 스포츠

⑨ 사회: 범죄, 사건사고, 재난, 시위, 파업

⑩ 비리: 저명인사, 지도층, 공직자, 정치인, 재벌의 ‘게이트’형 사건, ‘게이트’급은 아니더라도 주요 인사의 개인 문제 등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법원 판결도 여기에 포함

⑪ 인물: 미담(human interest story), 시사 인물이나 유명 인사의 인터뷰

⑫ 전쟁: 국내외 전쟁, 해외 파병 병력 관련, 테러리즘

⑬ 외신: 전쟁, 테러리즘을 제외한 전형적인 국제부 기사

⑭ 기타: 일반 여론조사 등

토대 정보의 신뢰성

기사의 토대가 되는 핵심 정보에 주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했다. 기사의 첫 부분에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의혹 제기의 주체가 분명하게 (실명으로) 나오면 확인된 정보로 코딩하고, 나머지는 미확인 정보로 코딩했다. 또 ‘~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표현은 미확인 정보로 간주했다. 그러나 ‘~로 확인됐다’는 문구가 있으면 확인 정보로 간주했다.

- ① 확인된 정보
- ② 미확인 정보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 ① 사용한 경우
- ②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 ①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본문에 있는 경우
- ②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본문에 없는 경우

전체 문장 수

앵커 멘트 제외한 전체 문장의 수를 기록했다. 방송뉴스 본문(흔히 <리포트>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마침표 개수와 일치한다. ‘라이브 인터뷰’도 분석에 포함했다.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위에서 설명한 ‘라이브 인터뷰’에 들어있는 문장의 수로서 화자의 성과 이름이 정확히 표현된 경우만 해당한다.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위에서 설명한 ‘라이브 인터뷰’에 들어있는 문장의 수로서 화자의 성명이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즉 익명으로 처리된 경우를 말한다.

실명 취재원 수

실명 취재원은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동일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1개로 카운트했다.

a) 실명 개인 취재원

성과 이름이 명시된 취재원을 뜻한다. ‘라이브 인터뷰’에 적여 있는 개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됐다.

b) 단체/기관 취재원

단체나 기관은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경우에 한하여 실명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당정은~’, ‘청와대는~’는 등이 그 예다. ‘경찰은~’, ‘재판부는~’ 등은 이름이 명확하지 않지만 관행상 정식명칭(‘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법원은~’)을 축약하여 사용함을 인정하여 실명 취재원으로 간주했다. 즉 ‘경찰이 ~라고 말했습니다/강조했습니다’는 실명 취재원으로 코딩했다. 그러나 ‘경찰은 ~라는 입장입니다/분위기입니다/방침입니다’는 아래의 익명 취재원으로 코딩했다.

c) 간접 취재원

이름이 명확히 표현된 자료나 문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익명 취재원 수

익명 취재원은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동일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1개로 카운트했다.

- a) 실명 개인 취재원 중 사람의 성명이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 b) 단체/기관 취재원 중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c) 간접 취재원 중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d) 불특정 다수 취재원(‘일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홍길동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의 경우에는 ‘홍길동’이라는 실명 취재원 1개와 ‘일부 전문가들은’이라는 익명 취재원 1개로 각각 코딩했다.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attributed) 문장 수

위의 실명 취재원 중 어느 하나라도 언급되어 있는 문장의 수를 기록했다. 동일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들은 모두 카운트했다. 즉 첫 번째 문장에 ‘홍길동’이라는 취재원이 제시되고, 세 번째 문장에 ‘홍 씨는’ 등으로 동일 인물이 다시 제시되면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은 2개로 카운트했다. ‘라이브 인터뷰’가 실명 취재원이면 당연히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간주했다. 주의할 점은, 앞의 문장에 실명 취재원이 문장의 주어로 언급되어 있고, 그 (직)후의 문장은 주어 없이 서술되었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앞의 문장에 언급된 그 주어임을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카운트했다. 그러나 앞의 문장에 실명 취재원이 언급되었지만 주어로 쓰이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라이브 인터뷰’ 후의 문장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즉 ‘라이브 인터뷰’ (직)후의 문장이 주어 없이 서술되었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라이브 인터뷰’의 화자임을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간주했다.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하되, 취재원이 익명인 경우를 뜻한다. 즉 위의 익명 취재원 중 어느 하나라도 언급되어 있는 문장의 수를 기록했다. 동일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들은 모두 카운트했다. 즉 첫 번째 문장에 ‘홍 모 씨’라는 취재원이 제시되고, 세 번째 문장에 ‘홍 씨는’ 등으로 동일 인물이 다시 제시되면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은 2개로 카운트했다. ‘라이브 인터뷰’가 익명 취재원이면 당연히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간주했다. 주의할 점은, 앞의 문장에 익명 취재원이 문장의 주어로 언급되어 있고, 그 (직)후의 문장은 주어 없이 서술되었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앞의 문장에 언급된 그 주어임을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앞의 문장에 익명 취재원이 언급되었지만 주어로 쓰이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라이브 인터뷰’ 후의 문장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즉 ‘라이브 인터뷰’ (직)후의 문장이 주어 없이 서술되었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라이브 인터뷰’의 익명 화자임을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으로 간주했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엄격한 의미에서 방송뉴스의 직접인용구는 ‘라이브 인터뷰’뿐이다. 이것만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이며 나머지는 기자가 취재원의 발언을 자기의 말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뉴스의 문장에 들어있는,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은 취재원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신문기사의 경우와 달리, 아무 의미가 없는 표시다. 이들은 모두 신문기사에서 기자가 따옴표 없이 취재원의 발언을 옮기는 간접인용과 동일하다. 즉 방송뉴스의 각종 따옴표는 그것이 있든 없든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코딩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또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로 묶여있지 않은 내용 중 상당 부분도 실제로는 취재원의 발언에 근거하여 (거의 그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인용으로 봐야 한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뉴스 문장에서 [~라고 말했습니다(밝혔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또는 [~라며 ~라고 말했습니다]와 같은 표현이다. 다시 말하지만, 큰따옴표는 있든 없든 무의미하므로 [~라며] 또는 [~라고]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인용구의 술어로 보면 된다.

[갑은 ~라고 말했습니다]에서 ‘말했습니다’가, [갑은 ~했다고 밝혔습니다]에서 ‘밝혔습니다’가, [갑은 을이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에서 ‘주장했습니다’가 인용구의 술어다. 이런 인용구 술어 중에서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덧붙였습니다’ 등 4개 외에는 모두 주관적 술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문장에서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가 복수로 발견되면, 모두 카운트했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의 예는 [~라고(~라며) 강조했다, 주장했다, 당부했다. 아쉬워했다. 우려했다, 단언했다, 촉구했다, 경고했다, 선언했다, 지적했다, 비판했다, 설명했다, 해명했다, 반문했다, 의혹을 제기했다, 의아해했다, 시사했다, 기대했다, 전망했다, 평가했다, 토론했다, 귀띔했다, 의지를 분명히 하다, 반반하고 있다, 공감을 표시하다] 등이며 [~라고 말할 정도다, ~라고도 했다, ~고까지 했다]처럼 ‘말했다’가 사소하게 변형된 경우도 모두 주관적 술어다. 또 [갑은 ~라고 말해,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처럼 인용구의 술어는 비주관적이지만 그 후의 표현이 (기자의 주관적) 서술이나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로 간주했다. [갑은 ~라며 ~라고 주장했다]의 경우는 주관적 술어 1개로 코딩했다.

무(無)주체(또는 無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술어가 주관적 어감을 주는 문장으로서 서술 내용의 주어(또는 주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주관적 어감은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느껴지는 표현 또는 평가적 표현이다. 이런 문장의 최종 술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현들이 문장 중에 술어로 사용된 경우도 이에 해당. 이런 술어는 대체로 ‘~라는’ 또는 ‘~로’에 이어서 사용된다.

주관적 술어의 예는 [~라는 분석입니다(또는 ~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하 마찬가지로), 지적입니다(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입니다(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주장입니다(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평입니다, 확신입니다, 의문입니다, 소식입니다, 평가입니다(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입니다, 입장입니다, 방침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격찬이 쏟아졌습니다], [~로 보입니다,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추정됩니다,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 셈입니다, ~해야 할 판입니다] 등이다. ‘~라는 겁니다’ 식의 문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문장은 술어(분석/지적/비판/계획/주장/평가하다 등)의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기자가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문으로 볼 수 있는 표현 직후에 나오는 술어가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유목으로 코딩했다.

신문식 조어 또는 무리한 조어

전형적인 예는 방북, 이십 박심, 친이계, 친박계, 북풍, 총풍, 병풍 등이다.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금기어나 비속어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다섯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전체 수를 기록했다.

a) 신체적 약점을 그대로 지칭하는 표현

* 슈어는 태어난 직후 사고로 시력을 잃은 맹인 가수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 맞춰 한국을 찾는다.

→ ‘맹인’이라는 수식어를 빼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앞부분에 시력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 선청선 난청(귀머거리·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전 군도 어머니와 같은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청각 장애 2급)

* 정부는 현실로 닥친 요일쇼크에도 그저 꿀먹은 벼어리 모양 묵묵부답이다.

→ 신체 장애를 이용한 표현이다.

* “인프라 측면에선 약한 절름발이 도시”라고 지적했다.

→ 신체장애를 이용한 표현이다.

* 눈 뜬 장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 역시 신체장애를 빈댄 표현이므로 대체할 다른 말을 찾아야 한다.

b)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 ‘얼짱 스타’ 김요한에게 몰려들어 사인도 받아갔다.

→ 외모를 강조함으로써 선수의 기량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

* 미모의 부인을 두고도 남자 부하직원과 동성애를 하다가 발각돼 2004년 사임한...

→ 부인이 미모가 아니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 권상우 근육질 몸매 닮은 ‘서어나무’

→ 남성의 근육질을 몸매를 권장하는 듯하다.

* 꽃미남 에드워드 노튼이 괴물 ‘헐크’로 변할 때, 그는 녹색이 된다.

→ 외모를 이용해 시선을 끌어 보려는 표현이다.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하게 된다.

* 기타 사례로는 몸짱, 초코렛 복근 등

c) 직업 및 사회적 지위

* 상위권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KAIST 포스텍 이화여대 성균관대)의 특별전형 선발인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상위권 8개 대학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 신용불량자는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다.

→ 단지 금융채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신용이 불량하다고 낙인찍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 *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의·치·한·약학계열 합격률이 80%를 넘었다.
 - SKY를 삭제하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가나다 순서로 쓰면 된다.
- * 화장실 청소부로부터 시작해 6계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 된...
 -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면 시대가 원하는 용어로 대체해 쓰는 것이 배려하는 방법이다. (미화원)
- *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연세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한림대병원, 을지병원 등 5곳이다.
 - 구분 없이 서울대병원, 연세대 의료원, 경희대의료원, 한림대병원, 을지병원으로 쓰면 된다.
- *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이 평가하려는 하나로 논술과
 - (상위권 대학들이)
- * 파출부
 - (가사도우미)
- * 간호원
 - (간호사)
- * 말단공무원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고위 관료보다 4배가량 높았다.
 - 특정 직업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일선 공무원' 정도가 적당하다.
- * 매춘부 대신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걸친 마네킹들이 나타났다.
 - 성을 파는 사람만 강조하는 어휘가 '매춘부'다. 사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성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공정하다. (성매매여성)

d) 인종, 국적 및 지역

- * 중국의 조선족 출신 기사 박문요 5단과의 대결
 - 일본에 사는 동포는 재일동포, 미국에 사는 동포는 재미동포라고 하듯이 중국에 사는 동포는 '재중동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 *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첫 유색인종 편집장
 - '백인'만 색깔 없는 인종이라는 의미다. 백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차용한 용어다.
- * 고려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 재러동포 또는 동포 할아버지와 할머니
- * '황색탄환'
 - 백인 관점에서 본 백인 우월적 표현이다.

e) 양성 불평등 및 성 정체성

- * 판매장 아가씨
 - (판매원, 직원)
- * 빨난 아줌마들
 - '아줌마'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사전에는 아줌마를 '아주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되어 있다. 낮추어 부르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의미가 완전히 탈색되지는 않는다.
- * 미혼모
 - 미혼모는 남성 중심의 표현이다. 남성은 겉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표현이다. 일부 '비혼모'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다.

* 처녀작

→ ‘처음’을 의미할 때 쓰는 ‘처녀’는 성차별적인 어휘의 대표감이다. 처녀작, 처녀생식, 처녀림, 처녀출전 등은 사전에 올라있는 어휘지만 여성에게 ‘순결주의’를 강조하던 시대의 잔재다. 각각 첫 작품, 단성생식(또는 단위생식), 원시림, 첫 출전 등으로 쓰는 것이 좋다.

* 학부형

→ 어머니는 빠져 있고 그 자리에 형이 들어가 ‘학부형’이다. 최근 들어 ‘학부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학부모’가 쓰이고 있다.

과어휘 수

최상급 표현, 강렬한 언어, 극단적인 표현, 파국식 표현 등을 모두 카운트했다.

* 사상최악의 물난리

* 사후조치 전무

* 쓰레기 대란, 통신 대란

* 대반란

* 최정상

* 총체적 난국

(4) 코딩 과정과 코더 신뢰도

기사 내용분석 경험이 있는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과 국어학 전공 현직 기자 등 5명이 코딩을 맡았다. 코더 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상호 토론을 통해 조정했다.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산출하기 위해 분석 대상 뉴스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코헨 카파(Cohen's Kappa)계수는 평균 .85였다.

4. 분석결과

1) 국어 측면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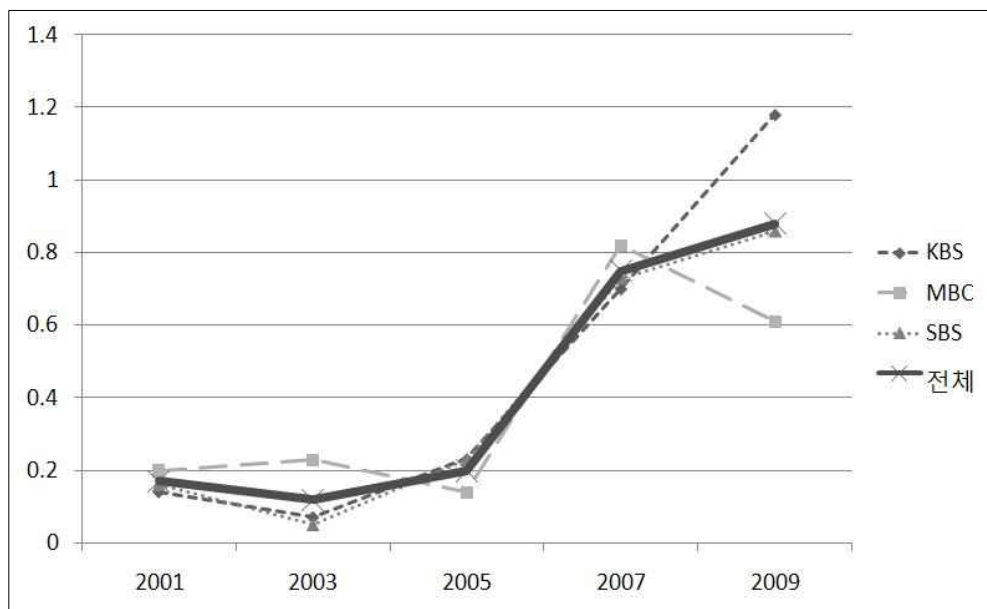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42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4개꼴로 주어가 없는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참조). 하루에 방송되는 뉴스 아이템이 약 25개임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그중 약 10개의 아이템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발견되는 것이므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방송사별로 보면, 주어가 없는 문장 수는 KBS가 가장 많았고(.46개), SBS(.41개)와 MBC(.40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42개)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주어가 없는 문장의 수는 2003년에만 조금 감소했을 뿐이며,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급증한 해는 2007년이며, 2009년에는 그보다 더 증가했다. 다만, MBC만 2009년에 상당히 감소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7년 SBS).

<표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14	.40	.07	.26	.23	.50	.70	.99	1.18	.99	.46	.81
MBC	.20	.55	.23	.54	.14	.40	.82	.74	.61	.80	.40	.68
SBS	.16	.50	.05	.23	.23	.57	.73	.92	.86	.109	.41	.79
전체	.17	.49	.12	.38	.20	.50	.75	.89	.88	.99	.42	.76

* SD는 표준편차. 이하 마찬가지.



<그림 1> 주어가 없는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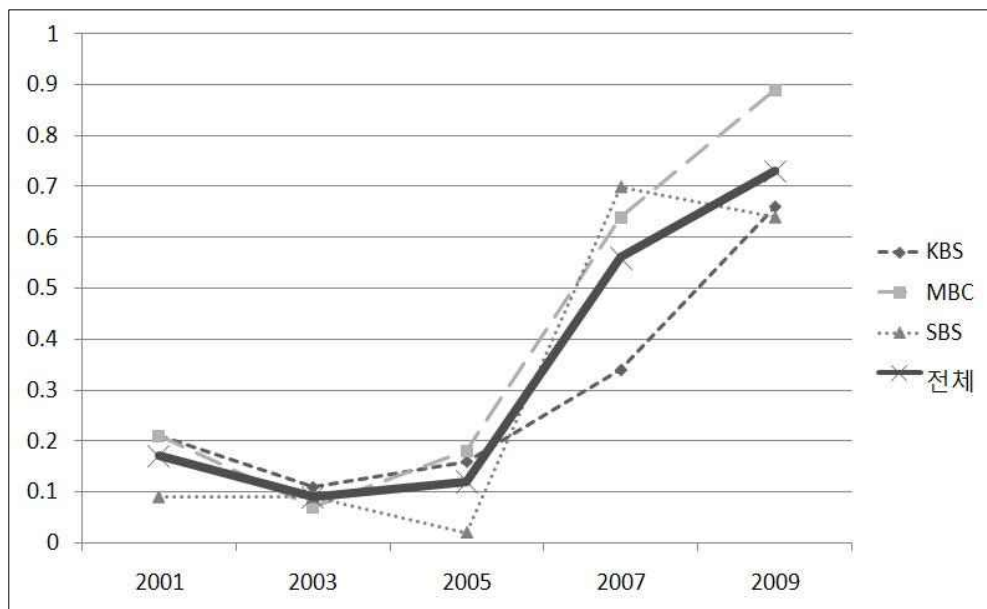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33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3개꼴로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2> 참조).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는 MBC(.40개)가 가장 많았고, SBS(.30개)와 KBS(.31개)는 비슷한 수를 나타내며 평균치(.33개)보다 다소 적었다.

방송 3사 뉴스에서 발견되는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0.2개 이하로 매우 적었으나, 200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7년 SBS).

<표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21	.53	.11	.31	.16	.37	.34	.55	.66	.79	.30	.57
MBC	.21	.49	.07	.26	.18	.47	.64	.75	.89	.99	.40	.71
SBS	.09	.29	.09	.29	.02	.13	.70	.91	.64	.82	.31	.65
전체	.17	.45	.09	.29	.12	.36	.56	.76	.73	.87	.33	.65



<그림 2> 주어-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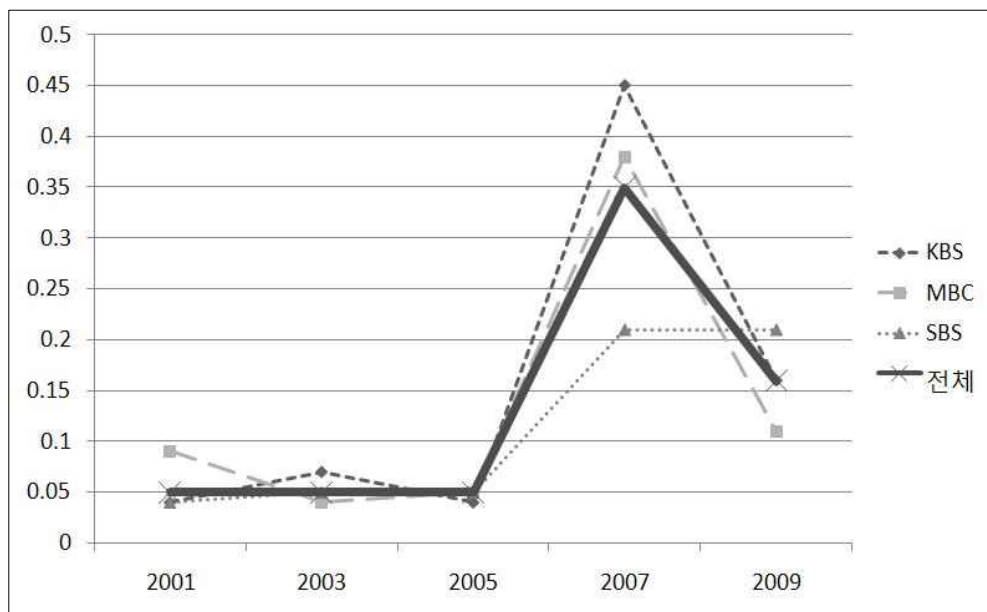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3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3> 참조). 잘못된 피동형의 서술어를 사용한 문장 수는 KBS(.15개)가 가장 많았고, MBC(.13개)는 평균치와 비슷했으며, SBS(.11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 뉴스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0.1 이하로 매우 적었지만, 2007년에 3사 모두 급증했다. 2009년 평균치(.16개)는 2007년 평균치(.35개)보다 줄었지만, 2005년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와 MBC의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7년 KBS).

<표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4	.19	.07	.26	.04	.19	.45	.91	.16	.37	.15	.49
MBC	.09	.44	.04	.27	.05	.23	.38	.82	.11	.31	.13	.48
SBS	.04	.19	.05	.23	.05	.23	.21	.49	.21	.49	.11	.36
전체	.05	.30	.05	.25	.05	.21	.35	.77	.16	.40	.13	.45



<그림 3>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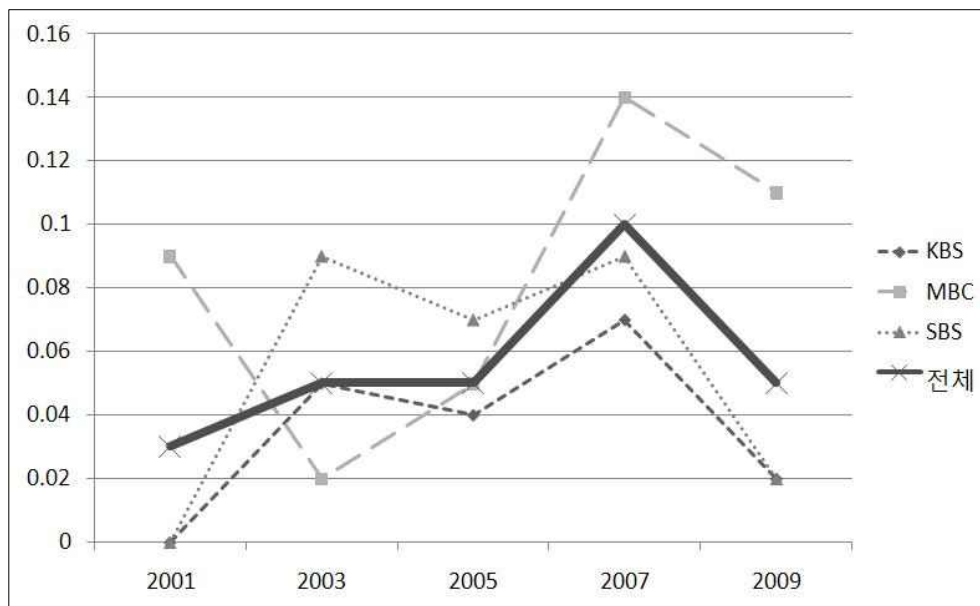
(4) ‘갯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6개 즉 2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갯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4>, <그림 4> 참조). ‘갯다’의 영어식 표현이 나타난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보면, MBC가 가장 많았고(.08개), SBS(.06개)는 평균치와 같았으며, KBS(.04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갯다’의 영어식 표현은 2007년에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다른 방송사와 달리 2001년에 ‘갯다’의 영어식 표현이 많았지만, 2003년에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에 다시 급증하여 가장 높은 평균값(.14개)을 나타냈다.

<표 4> ‘갯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0	.00	.05	.30	.04	.27	.07	.26	.02	.13	.04	.22
MBC	.09	.48	.02	.13	.05	.23	.14	.40	.11	.31	.08	.33
SBS	.00	.00	.09	.29	.07	.26	.09	.29	.02	.13	.06	.23
전체	.03	.28	.05	.25	.05	.25	.10	.32	.05	.21	.06	.27



<그림 4> ‘갯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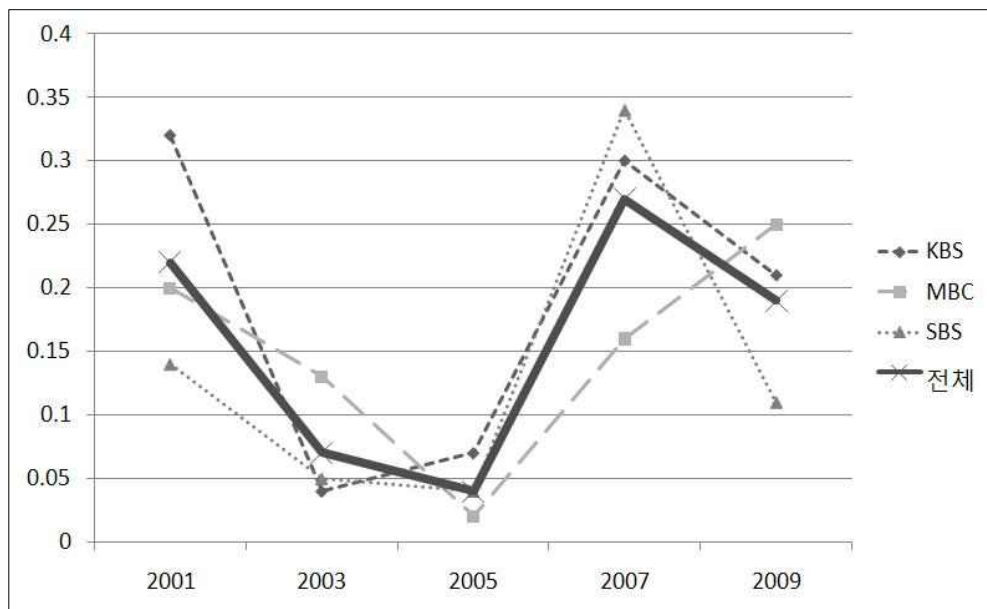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6개 즉 20개의 뉴스에서 약 3개꼴로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5> 참조).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문장 수는 KBS가 가장 많았고(.19개), MBC(.15개)와 SBS(.14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16개)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문장의 수는 2003년과 2005년에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BC를 제외하고 2009년에 다시 감소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9년 MBC).

<표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32	.86	.04	.19	.07	.26	.30	.63	.21	.53	.19	.56
MBC	.20	.40	.13	.38	.02	.13	.16	.37	.25	.75	.15	.46
SBS	.14	.40	.05	.23	.04	.19	.34	.72	.11	.31	.14	.43
전체	.22	.59	.07	.28	.04	.20	.27	.59	.19	.56	.16	.48



<그림 5> ‘~하다’를 ‘~되다’로 잘못 표현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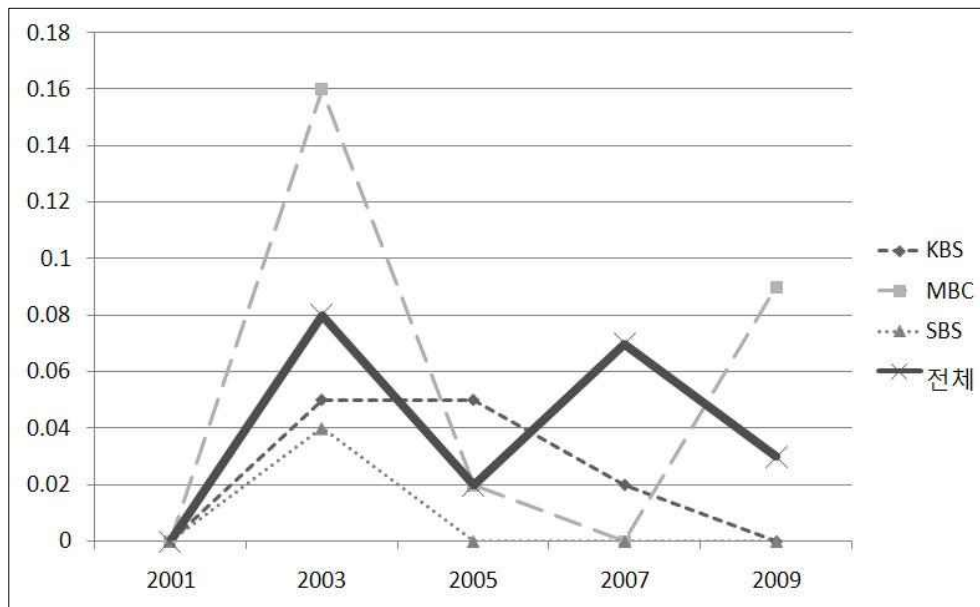
(6) 시점 혼돈 표현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3개 즉 3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시점 혼돈 표현이 있는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6>, <그림 6> 참조). 시점 혼돈 표현의 문장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05개), KBS(.03개)는 평균치와 같았으며, SBS(.01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시점 혼돈 표현 문장 수는 2001년에는 없었으나, 2003년에 증가했으며, 특히 MBC가 가장 급증했다. SBS는 2003년에만 시점 혼돈 표현 문장 수가 발견될 뿐 그 이외의 조사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시점 혼돈 표현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0	.00	.05	.23	.05	.30	.02	.13	.00	.00	.03	.18
MBC	.00	.00	.16	.50	.02	.13	.00	.00	.09	.29	.05	.27
SBS	.00	.00	.04	.19	.00	.00	.00	.00	.00	.00	.01	.08
전체	.00	.00	.08	.34	.02	.19	.07	.08	.03	.17	.03	.19



<그림 6> 시점 혼돈 표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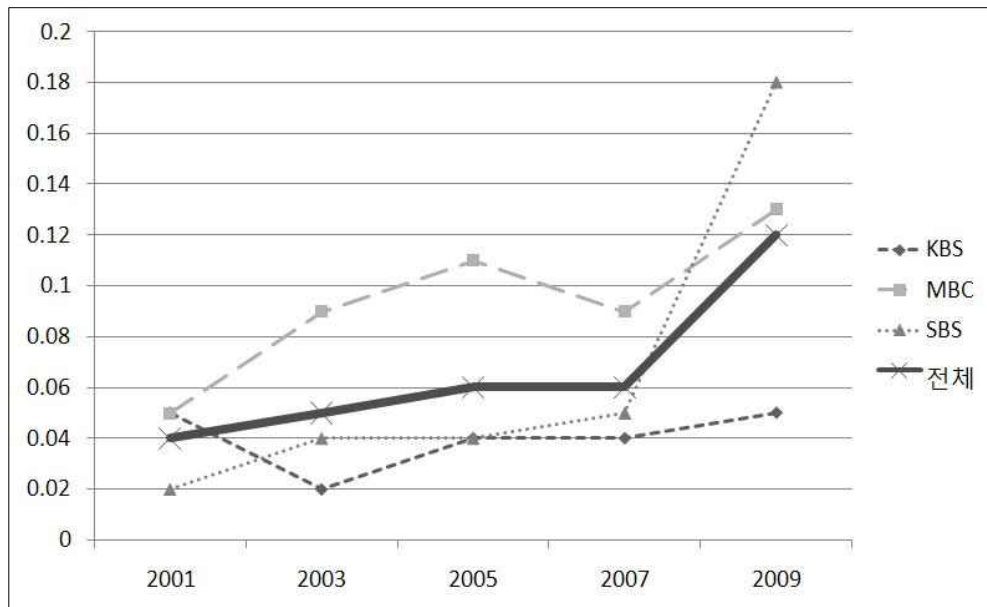
(7) ‘[명사]+~중이다’ 식의 표현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7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1개 이하로 ‘[명사]+~중이다’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7>, <그림 7> 참조). ‘[명사]+~중이다’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보면, MBC가 가장 많았고(.09개), SBS(.06개)와 KBS(.04개)는 평균치(.07개) 이하로 나타났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명사]+~중이다’ 문장 수는 2009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BS는 2007년까지 0.05개 이하로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0.18개로 증가폭이 매우 컸다. KBS는 조사 기간 동안 0.05개 이하를 유지했고, MBC는 2003년 이후 대략 0.1개 수준이었다.

<표 7> ‘[명사]+~중이다’ 식의 표현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5	.23	.02	.13	.04	.19	.04	.19	.05	.23	.04	.20
MBC	.05	.23	.09	.35	.11	.37	.09	.35	.13	.33	.09	.33
SBS	.02	.13	.04	.19	.04	.19	.05	.23	.18	.47	.06	.27
전체	.04	.20	.05	.24	.06	.26	.06	.26	.12	.36	.07	.27



<그림 7> ‘[명사]+~중이다’ 식의 표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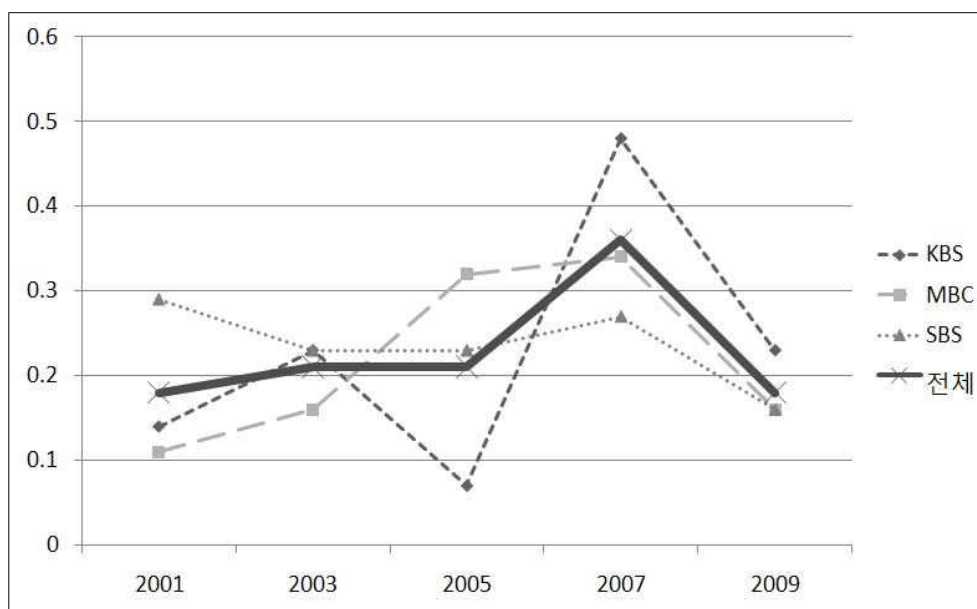
(8) [수사+ 명사] 표현의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23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2개꼴로 [수사+ 명사] 표현의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8> 참조). [수사+ 명사] 표현의 문장 수는 방송 3사가 모두 평균치와 엇비슷했다. 방송사별 순서는 SBS(.24개), KBS(.23개) 그리고 MBC(.22개) 순이었다.

방송 3사에서 발견되는 [수사+ 명사] 표현의 문장의 수는 2007년에 가장 많았고, 이후 2009년에는 감소했다. 특히 KBS는 2005년에는 그 수가 매우 적었으나, 2007년에 급증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수사+ 명사] 표현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3개였다(2001년과 2009년 SBS).

<표 8> [수사+ 명사] 표현의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14	.44	.23	.57	.07	.42	.48	.76	.23	.50	.23	.57
MBC	.11	.41	.16	.42	.32	.69	.34	.64	.16	.46	.22	.54
SBS	.29	.59	.23	.47	.23	.47	.27	.52	.16	.57	.24	.52
전체	.18	.49	.21	.49	.21	.55	.36	.65	.18	.51	.23	.54



<그림 8> [수사+ 명사] 표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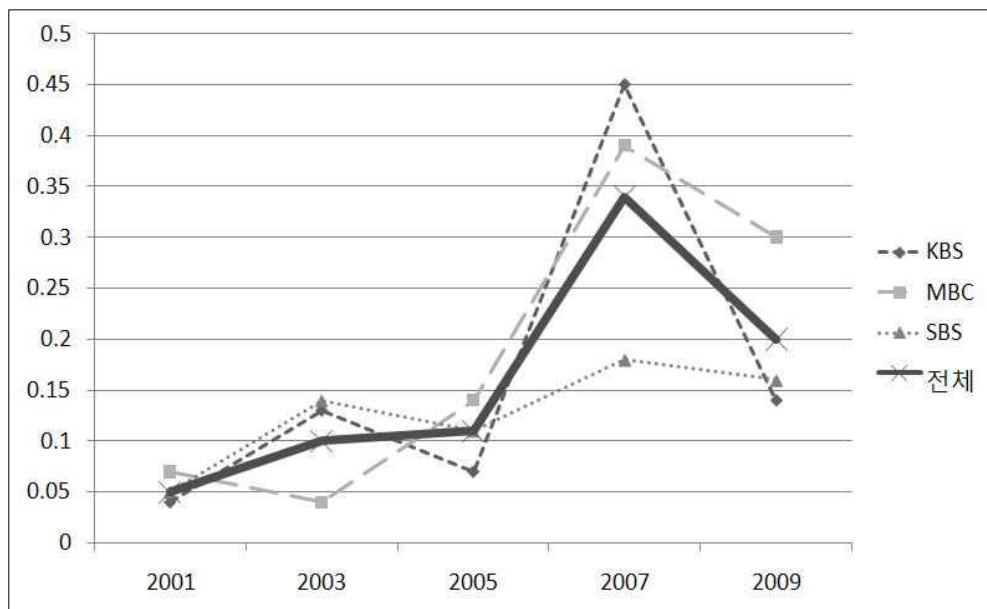
(9) 동의 중복어(겹말표현)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6개 즉 6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동의 중복어가 들어간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적었다(<표 9>, <그림 9> 참조). 동의 중복어가 있는 문장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19개), KBS는 평균치(.16개)와 같았으며, SBS(.13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동의 중복어가 나타난 문장 수는 2007년에 증가했다가 2009년에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MBC와 KBS의 증가 폭이 컸으며, KBS의 경우 2007년에는 2번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동의 중복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동의 중복어(겹말표현)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4	.19	.13	.33	.07	.32	.45	.63	.14	.40	.16	.43
MBC	.07	.26	.04	.19	.14	.35	.39	.78	.30	.76	.19	.55
SBS	.05	.23	.14	.40	.11	.31	.18	.39	.16	.37	.13	.35
전체	.05	.23	.10	.32	.11	.33	.34	.63	.20	.54	.16	.45



<그림 9> 동의 중복어(겹말표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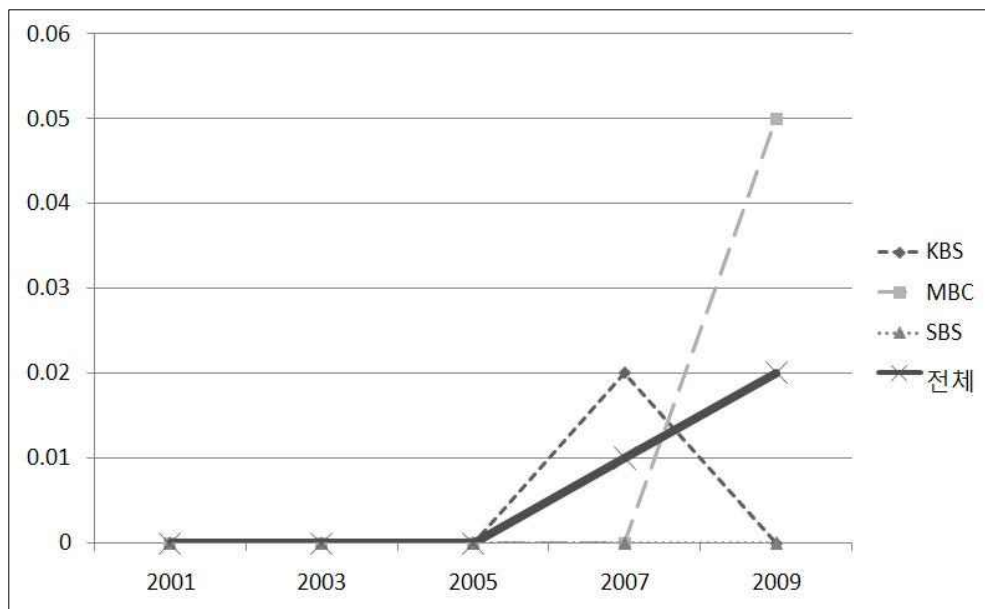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10> 참조).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의 방송사별 평균치를 보면, MBC의 경우만 0.01개로 나타났고, KBS와 SBS는 0개로 나타나 그 사례가 극히 적었다.

2009년 MBC와 2007년 KBS의 경우만이 사전에 없는 외국어가 사용된 문장이 뉴스에서 발견되었고, SBS는 조사기간 동안 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0	.00	.00	.00	.00	.00	.02	.13	.00	.00	.00	.06
MBC	.00	.00	.00	.00	.00	.00	.00	.00	.05	.23	.01	.10
SBS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00	.00	.00	.00	.00	.00	.01	.07	.02	.13	.00	.45



<그림 10> 사전에 없는 외국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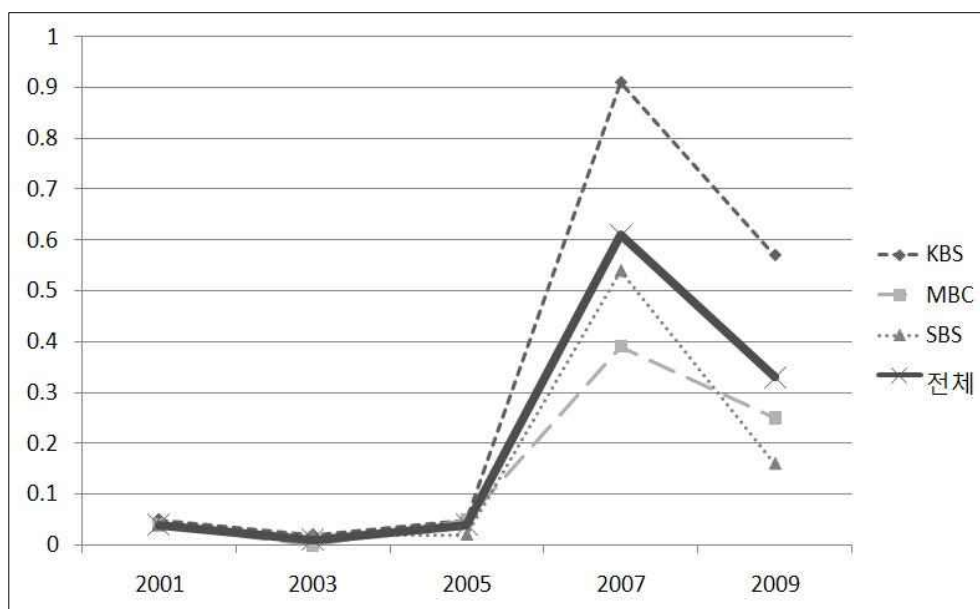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2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2개꼴로 일본식 복합조사가 있는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그림 11> 참조). 일본식 복합조사를 사용한 문장 수는 KBS가 가장 많았고(.32개), MBC와 SBS(각 .15개)는 평균치(.21개) 이하로 같았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나타난 일본식 복합조사가 들어간 문장 수는 2007년에 급증했으나 2009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의 경우, 2007년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매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발견되었다. 하나의 뉴스에서 일본식 복합조사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9년 KBS).

<표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5	.30	.02	.13	.05	.30	.91	1.03	.57	1.02	.32	.77
MBC	.04	.19	.00	.00	.05	.23	.39	.56	.25	.55	.15	.40
SBS	.04	.19	.02	.13	.02	.13	.54	.71	.16	.37	.15	.43
전체	.04	.23	.01	.11	.04	.23	.61	.82	.33	.72	.21	.56



<그림 11> 일본식 복합조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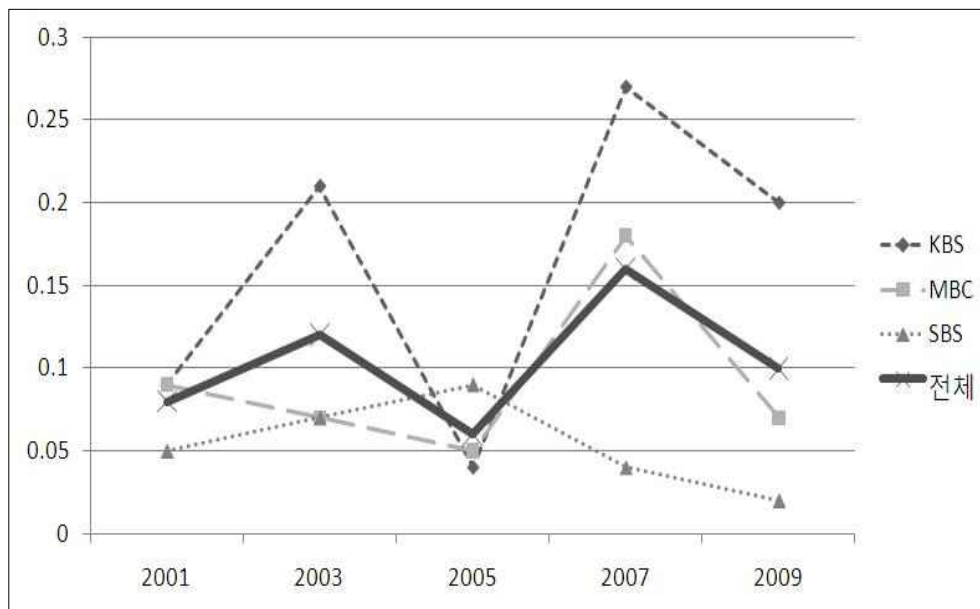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과도한 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그림 12> 참조). 과도한 명사를 사용한 표현의 수는 KBS가 가장 많았고(.16개), MBC(.09개)와 SBS(.05개)는 평균치(.10개) 이하로 나타나 그 사례가 적었다.

MBC와 KBS는 2007년에 과도한 명사 표현의 수가 급증한 이후 2009년 감소했다. 특히 KBS는 2003년과 2007년 급증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BS는 조사기간 동안 전체 평균치(.10개)를 밑도는 매우 적은 사례만을 보여주었다.

<표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9	.29	.21	.59	.04	.19	.27	.62	.20	.48	.16	.47
MBC	.09	.29	.07	.32	.05	.23	.18	.39	.07	.26	.09	.30
SBS	.05	.23	.07	.32	.09	.29	.04	.19	.02	.13	.05	.24
전체	.08	.27	.12	.44	.06	.24	.16	.44	.10	.33	.10	.35



<그림 12> 과도한 명사 사용 표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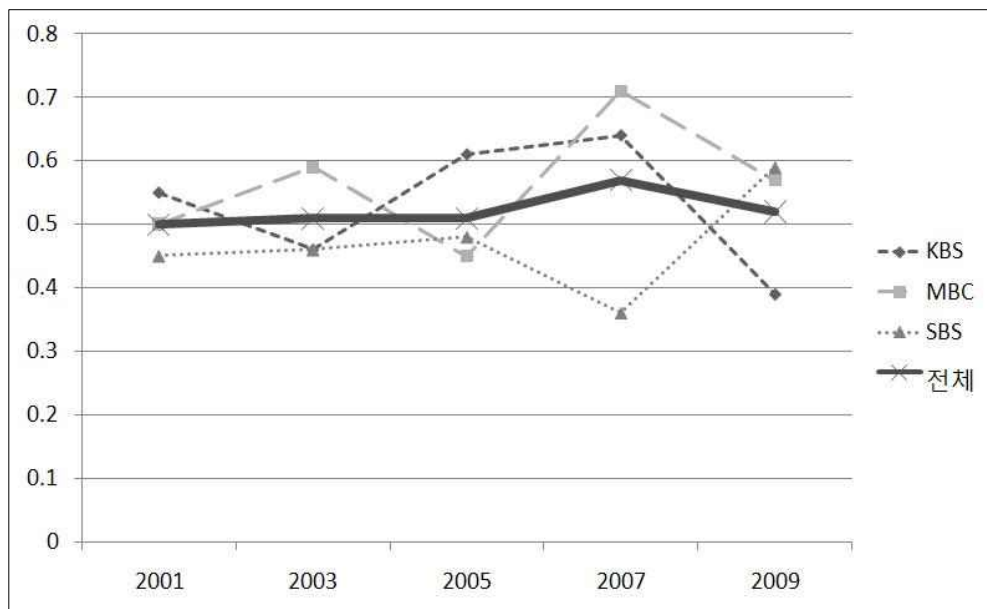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5개 즉 2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그림 13> 참조).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56개), KBS(.53)는 평균치(.52개)와 비슷했으며, SBS(.47)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는 SBS의 경우 2007년에 감소 후 2009년에는 다시 증가했으며, KBS와 MBC는 200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에 대해’를 사용한 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7개였다(2001년 KBS와 2007년 MBC).

<표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55	1.24	.46	.87	.61	.99	.64	1.00	.39	.62	.53	.96
MBC	.50	.93	.59	1.04	.45	.81	.71	1.35	.57	.91	.56	1.02
SBS	.45	.87	.46	.85	.48	.89	.36	.65	.59	.87	.47	.83
전체	.50	1.02	.51	.92	.51	.90	.57	1.04	.52	.81	.52	.94



<그림 13> 불필요하게 ‘~에 대해’를 사용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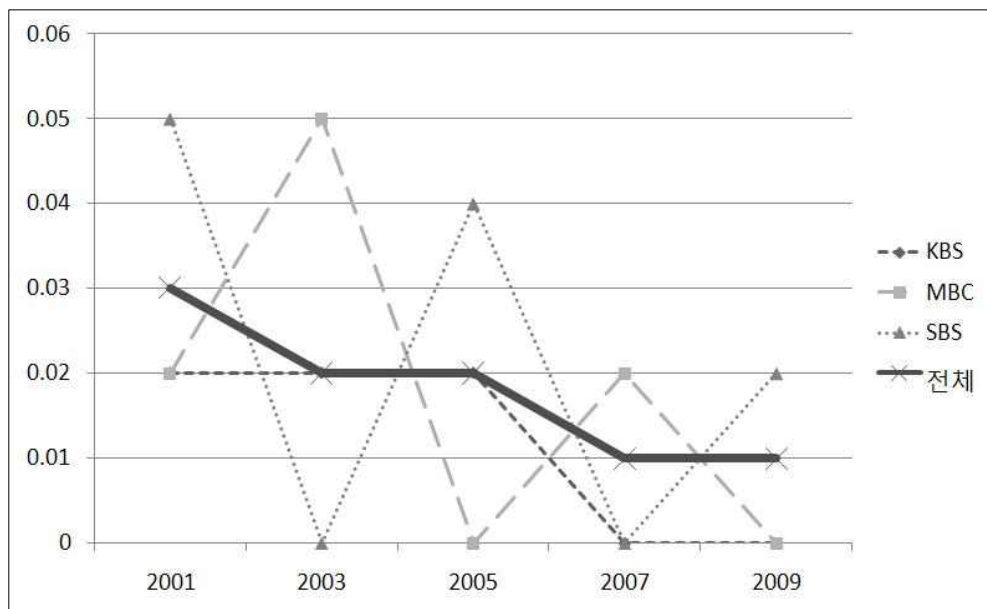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2개 즉 5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극히 적었다(<표 14>, <그림 14> 참조).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는 MBC(.02개)와 SBS(.02개)가 평균치와 비슷했고, KBS(.01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KBS의 경우 2005년까지 매우 적은 사례(.02개)를 보여주다가 2007년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 MBC는 2003년과 200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SBS는 2005년과 200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2	.13	.02	.13	.02	.13	.00	.00	.00	.00	.01	.10
MBC	.02	.13	.05	.23	.00	.00	.02	.13	.00	.00	.02	.13
SBS	.05	.23	.00	.00	.04	.19	.00	.00	.02	.13	.02	.15
전체	.03	.17	.02	.15	.02	.13	.01	.08	.01	.08	.02	.13



<그림 14> 불필요하게 ‘~에 의해’를 사용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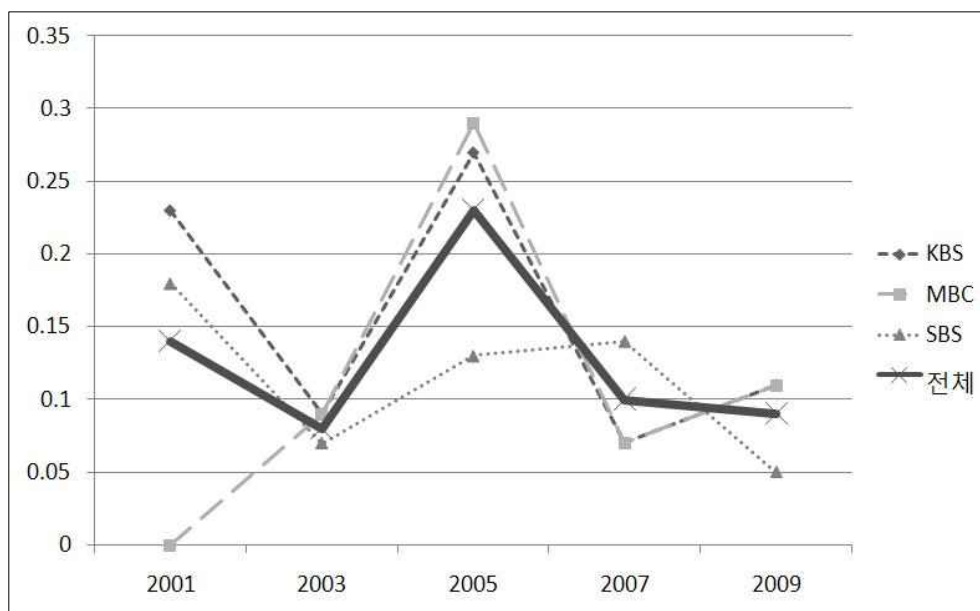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3개 즉 8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많지 않았다(<표 15>, <그림 15> 참조).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는 KBS가 가장 많았고(.15개), MBC(.11개)와 SBS(.11개)는 평균치(.13개)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문장 수는 KBS와 SBS는 2003년 감소 후 2005년에 다시 급증했다. MBC의 경우 2001년에는 사례가 없었으나, 2003년과 2005년 연속으로 증가 후 2007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23	.50	.09	.29	.27	.89	.07	.32	.11	.31	.15	.43
MBC	.00	.00	.09	.29	.29	.53	.07	.26	.11	.31	.11	.34
SBS	.18	.43	.07	.26	.13	.43	.14	.44	.05	.23	.11	.37
전체	.14	.39	.08	.28	.23	.52	.10	.35	.09	.29	.13	.38



<그림 15> 불필요하게 ‘~을 위해’를 사용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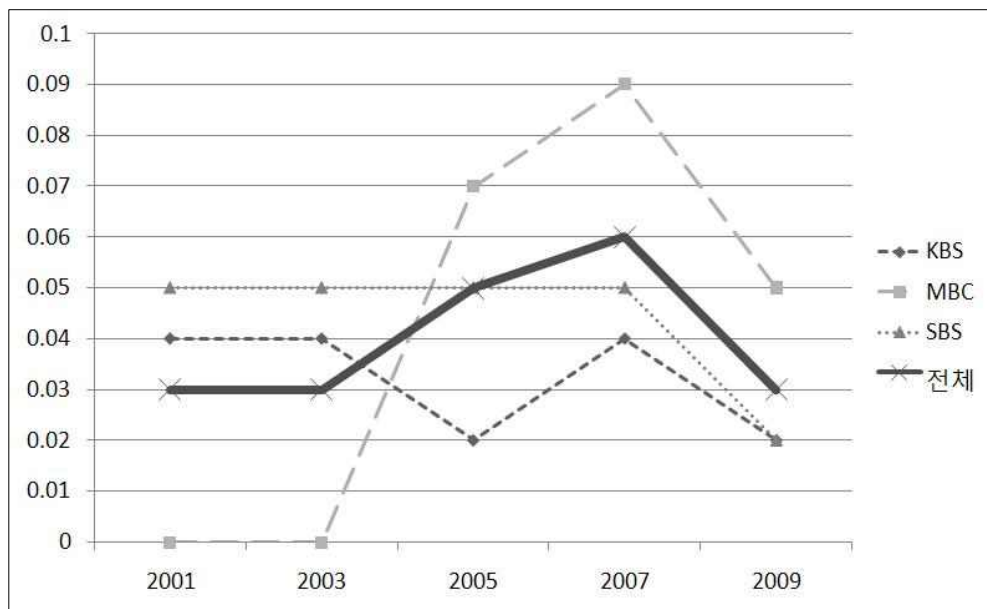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4개 즉 25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불필요한 행정문투나 보도자료 식 표현을 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16>, <그림 16> 참조). 불필요한 행정문투나 보도자료 식 표현의 문장 수는 MBC와 SBS가 평균치(.04개)와 같았고, KBS(.03개)는 평균치보다 조금 적었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불필요한 행정문투나 보도자료 식 표현의 문장 수는 2007년 증가 후 2009년에 감소했다. 특히, MBC는 2001년과 2003년에는 해당 사례가 없었으나, 2005년과 2007년에 급증했고, SBS는 2007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4	.19	.04	.27	.02	.13	.04	.19	.02	.13	.03	.19
MBC	.00	.00	.00	.00	.07	.42	.09	.35	.05	.23	.04	.26
SBS	.05	.23	.05	.23	.05	.23	.05	.30	.02	.13	.04	.23
전체	.03	.17	.03	.20	.05	.29	.06	.28	.03	.17	.04	.23



<그림 16> 불필요한 행정문투/보도자료 식 표현의 수

2) 저널리즘 측면

(1) 기사의 주제

방송 3사 뉴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기사가 가장 많았고(154개, 18.3%), 다음으로 문화(102개), 경제(82개), 비리(75개), 정치(67개), 북한 및 국방(65개), 보건복지(58개), 인물(5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가장 적게 등장한 기사 주제는 교육으로 15개(1.8%)의 기사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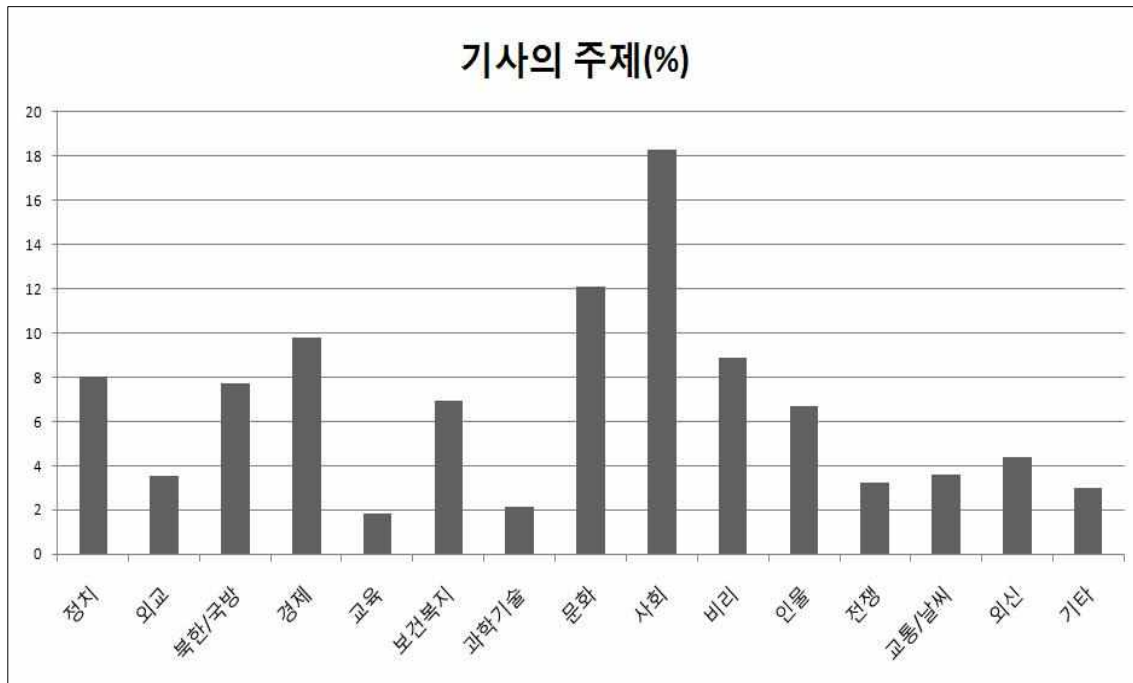
경제 기사의 경우 2003년에만 기사 수가 한 자리로 적었으나, 2005년과 2007년에는 연속으로 20개 이상의 기사가 등장했다. 사회 기사 역시 매년 30개 이상의 많은 기사가 등장했으나 2007년에만 15개로 그 수가 줄었다. 북한 및 국방 기사는 2005년과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 기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교육 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었고, 특히 2005년 조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전쟁 기사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전쟁 영향으로 2003년에만 15개로 많이 등장했을 뿐 방송 3사의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기사의 주제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정치	빈도	10	20	11	15	11	67
	퍼센트	6.0	11.9	6.5	8.9	6.5	8.0
외교	빈도	6	5	8	7	3	29
	퍼센트	3.6	3.0	4.8	4.2	1.8	3.5
북한/ 국방	빈도	3	9	17	24	12	65
	퍼센트	1.8	5.4	10.1	14.3	7.1	7.7
경제	빈도	18	7	22	22	13	82
	퍼센트	10.7	4.2	13.1	13.1	7.7	9.8
교육	빈도	5	1	0	7	2	15
	퍼센트	3.0	.6	.0	4.2	1.2	1.8
보건복지	빈도	12	14	16	4	12	58
	퍼센트	7.1	8.3	9.5	2.4	7.1	6.9
과학기술	빈도	3	2	2	4	7	18
	퍼센트	1.8	1.2	1.2	2.4	4.2	2.1
문화	빈도	14	18	18	23	29	102
	퍼센트	8.3	10.7	10.7	13.7	17.3	12.1
사회	빈도	35	35	32	15	37	154
	퍼센트	20.8	20.8	19.0	8.9	22.0	18.3
비리	빈도	19	12	11	19	14	75
	퍼센트	11.3	7.1	6.5	11.3	8.3	8.9
인물	빈도	19	10	10	10	7	56
	퍼센트	11.3	6.0	6.0	6.0	4.2	6.7
전쟁	빈도	3	15	2	2	5	27
	퍼센트	1.8	8.9	1.2	1.2	3.0	3.2
교통/ 날씨	빈도	7	8	5	5	5	30
	퍼센트	4.2	4.8	3.0	3.0	3.0	3.6
외신	빈도	8	8	11	7	3	37
	퍼센트	4.8	4.8	6.5	4.2	1.8	4.4

기타	빈도	6	4	3	4	8	25
	퍼센트	3.6	2.4	1.8	2.4	4.8	3.0
전체	빈도	168	168	168	168	168	84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X^2=120.410$, $df=56$, $p<.000$



<그림 17> 기사의 주제

① KBS 기사의 주제

KBS 뉴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기사가 가장 많았고(59개, 21.1%), 문화(40개), 경제(30개), 북한 및 국방(24개), 보건복지(23개), 정치(21개), 비리(18개) 순이었다(<표 18> 참조). 가장 적게 등장한 기사는 과학기술로 단 4건(1.4%)에 불과했고, 교육(5개)과 외교(6개) 기사도 그 수가 적었다.

경제 기사의 경우 매년 5건 이하를 보여주다가 2007년에만 2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및 국방 기사의 경우는 2007년 이후 증가했고, 문화 기사는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사회 기사의 경우 매년 10개 이상이 등장했으나, 2007년에만 6건으로 감소했고, 정치 기사는 2003년과 2007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KBS 기사의 주제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정치	빈도	3	8	2	6	2	21
	퍼센트	5.4	14.3	3.6	10.7	3.6	7.5

외교	빈도	2	0	3	1	0	6
	퍼센트	3.6	.0	5.4	1.8	.0	2.1
북한/국방	빈도	2	4	4	8	6	24
	퍼센트	3.6	7.1	7.1	14.3	10.7	8.6
경제	빈도	4	5	5	22	5	30
	퍼센트	7.1	8.9	8.9	19.6	8.9	10.7
교육	빈도	3	0	0	2	0	5
	퍼센트	5.4	.0	.0	3.6	.0	1.8
보건복지	빈도	7	7	5	1	3	23
	퍼센트	12.5	12.5	8.9	1.8	5.4	8.2
과학기술	빈도	0	0	1	0	3	4
	퍼센트	.0	.0	1.8	.0	5.4	1.4
문화	빈도	5	4	11	9	11	40
	퍼센트	8.9	7.1	19.6	16.1	19.6	14.3
사회	빈도	12	14	11	6	16	59
	퍼센트	21.4	25.0	19.6	10.7	28.6	21.1
비리	빈도	8	0	3	4	3	18
	퍼센트	14.3	.0	5.4	7.1	5.4	6.4
인물	빈도	4	2	1	3	1	11
	퍼센트	7.1	3.6	1.8	5.4	1.8	3.9
전쟁	빈도	2	5	0	1	1	9
	퍼센트	3.6	8.9	.0	1.8	1.8	3.2
교통/날씨	빈도	2	2	2	1	0	7
	퍼센트	3.6	3.6	3.6	1.8	.0	2.5
외신	빈도	1	3	6	2	0	12
	퍼센트	1.8	5.4	10.7	3.6	.0	4.3
기타	빈도	1	2	2	1	5	11
	퍼센트	1.8	3.6	3.6	1.8	8.9	3.9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91.481$, $df=56$, $p<.002$

② MBC 기사의 주제

MBC 뉴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기사가 가장 많았고(47개, 16.8%), 문화(36개), 비리(33개), 경제(29개), 정치(21개), 북한 및 국방(21개), 인물(18개) 순이었다(<표 19> 참조). 가장 적게 등장한 기사는 과학기술 기사로 불과 3건(1.1%)에 불과했으며, 교육 기사(6개) 역시 적게 등장했다.

경제 기사의 경우 2003년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및 국방 기사는 2005년과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사는 2007년에 감소했으나 2009년에 다시 증가했고, 비리 기사는 2005년에 감소 후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에는 전쟁 기사가 급증했으나, 외신 기사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MBC 기사의 주제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정치	빈도	2	6	5	2	6	21
	퍼센트	3.6	10.7	8.9	3.6	10.7	7.5
외교	빈도	2	2	1	1	3	9
	퍼센트	3.6	3.6	1.8	1.8	5.4	3.2
북한/국방	빈도	0	1	8	9	3	21
	퍼센트	.0	1.8	14.3	16.1	5.4	7.5
경제	빈도	10	0	10	6	3	29
	퍼센트	17.9	.0	17.9	10.7	5.4	10.4
교육	빈도	1	1	0	2	2	6
	퍼센트	1.8	1.8	.0	3.6	3.6	2.1
보건복지	빈도	1	5	3	1	5	15
	퍼센트	1.8	8.9	5.4	1.8	8.9	5.4
과학기술	빈도	1	1	0	0	1	3
	퍼센트	1.8	1.8	.0	.0	1.8	1.1
문화	빈도	8	7	5	6	10	36
	퍼센트	14.3	12.5	8.9	10.7	17.9	12.9
사회	빈도	11	14	8	5	9	47
	퍼센트	19.6	25.0	14.3	8.9	16.1	16.8
비리	빈도	7	7	3	11	5	33
	퍼센트	12.5	12.5	5.4	19.6	8.9	11.8
인물	빈도	5	1	5	6	1	18
	퍼센트	8.9	1.8	8.9	10.7	1.8	6.4
전쟁	빈도	0	6	0	1	2	9
	퍼센트	.0	10.7	.0	1.8	3.6	3.2
교통/날씨	빈도	2	4	3	2	3	14
	퍼센트	3.6	7.1	5.4	3.6	5.4	5.0
외신	빈도	3	0	5	3	1	12
	퍼센트	5.4	.0	8.9	5.4	1.8	4.3
기타	빈도	3	1	0	1	2	7
	퍼센트	5.4	1.8	.0	1.8	3.6	2.5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X^2=87.836$, $df=56$, $p<.004$

③ SBS 기사의 주제

SBS 뉴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기사가 가장 많았고(48개, 17.1%), 인물(27개), 문화(26개), 정치(25개), 비리(24개), 경제(23개), 북한 및 국방(20개), 보건복지(20개) 순이었다(<표 20> 참조). 가장 적게 나타난 기사는 교육 기사로 단지 4건(1.4%)에 불과했다.

정치와 북한 및 국방 기사가 2007년 급증했고, 보건복지 기사는 2005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기사의 경우 2003년 그리고 2007년과 2009년에 급증했으나, 사회 기사는 2007년에 급감했다. 인물 기사 역시 2001년과 2003년에는 비중이 작지 않았지만,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SBS 기사의 주제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정치	빈도	5	6	4	7	3	25
	퍼센트	8.9	1.7	7.1	12.5	5.4	8.9
외교	빈도	2	3	4	5	0	14
	퍼센트	3.6	5.4	7.1	8.9	.0	5.0
북한/국방	빈도	1	4	5	7	3	20
	퍼센트	1.8	7.1	8.9	12.5	5.4	7.1
경제	빈도	4	2	7	5	5	23
	퍼센트	7.1	3.6	12.5	8.9	8.9	8.2
교육	빈도	1	0	0	3	0	4
	퍼센트	1.8	.0	.0	5.4	.0	1.4
보건복지	빈도	4	2	8	2	4	20
	퍼센트	7.1	3.6	14.3	3.6	7.1	7.1
과학기술	빈도	2	1	1	4	3	11
	퍼센트	3.6	1.8	1.8	7.1	5.4	3.9
문화	빈도	1	7	2	8	8	26
	퍼센트	1.8	12.5	3.6	14.3	14.3	9.3
사회	빈도	12	7	13	4	12	48
	퍼센트	21.4	12.5	23.2	7.1	21.4	17.1
비리	빈도	4	5	5	4	6	24
	퍼센트	7.1	8.9	8.9	7.1	10.7	8.6
인물	빈도	10	7	4	1	5	27
	퍼센트	17.9	12.5	7.1	1.8	8.9	9.6
전쟁	빈도	1	4	2	0	2	9
	퍼센트	1.8	7.1	3.6	.0	3.6	3.2
교통/날씨	빈도	3	2	0	2	2	9
	퍼센트	5.4	3.6	.0	3.6	3.6	3.2
외신	빈도	4	5	0	2	2	13
	퍼센트	7.1	8.9	.0	3.6	3.6	4.6
기타	빈도	2	1	1	2	1	7
	퍼센트	3.6	1.8	1.8	3.6	1.8	2.5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X^2=71.334$, $df=56$, $p<.081$

(2) 토대 정보의 신뢰성

분석한 840개의 방송 3사 뉴스 가운데 토대 정보의 신뢰성이 확인된 기사는 812개 (96.7%)이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28개(3.3%)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사는 토대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기사였다(<표 21> 참조). 토대 정보의 신뢰성이 확인 되지 않은 기사는 2001년에만 다소 높게 나타날 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된 해에는 5개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표 21> 토대 정보의 신뢰성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확인	빈도	158	163	164	163	164	812
	퍼센트	94.0	97.0	97.6	97.0	97.6	96.7
미확인	빈도	10	5	4	5	4	28
	퍼센트	6.0	3.0	2.4	3.0	2.4	3.3
전체	빈도	168	168	168	168	168	84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655$, $df=4$, $p<.325$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뉴스 가운데 토대 정보의 신뢰성이 확인된 기사는 275개(98.2%)이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5개(1.8%)였다. MBC는 확인된 기사가 266개(95.0%),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14개(5.0%), 그리고 SBS는 확인된 기사가 271개(96.8%),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9개(3.2%)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비록 대부분의 방송 3사 기사는 토대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기사였으나, 토대 정보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가장 많았던 곳은 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 3사의 연도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방송사별 토대 정보의 신뢰성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확인	빈도	53	56	56	55	55	275
		퍼센트	94.6	100.0	100.0	98.2	98.2	98.2
	미확인	빈도	3	0	0	1	1	5
		퍼센트	5.4	.0	.0	1.8	1.8	1.8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확인	빈도	51	54	54	53	54	266
		퍼센트	91.1	96.4	96.4	94.6	96.4	95.0
	미확인	빈도	5	2	2	3	2	14
		퍼센트	8.9	3.6	3.6	5.4	3.6	5.0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확인	빈도	54	53	54	55	55	271
		퍼센트	96.4	94.6	96.4	98.2	98.2	96.8
	미확인	빈도	2	3	2	1	1	9
		퍼센트	3.6	5.4	3.6	1.8	1.8	3.2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KBS: $X^2=6.109$, $df=4$, $p<.191$, MBC: $X^2=2.556$, $df=4$, $p<.653$, SBS: $X^2=1.607$, $df=4$, $p<.807$

(3)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방송 3사 뉴스에서 제목의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경우는 모두 127건(15.1%)이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713건(84.9%)으로, 대부분의 뉴스에서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제목의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경우는 2003년과 2005년이 다른 해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사용	빈도	18	33	32	20	24	127
	퍼센트	10.7	19.6	19.0	11.9	14.3	15.1
미사용	빈도	150	135	136	148	144	713
	퍼센트	89.3	80.4	81.0	88.1	85.7	84.9
전체	빈도	168	168	168	168	168	84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X^2=8.683$, $df=4$, $p<.070$

방송사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방송사는 SBS로 사용이 47건(16.8%), 미사용이 233건(83.2%)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다음으로 MBC는 사용이 41건(14.6%), 미사용이 239건(85.4%) 그리고 KBS는 사용이 39건(13.9%), 미사용이 241건(86.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볼 때 방송 3사 모두 사용 비율이 2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BC의 경우 2007년 이후 사용 비중이 감소했고, KBS와 SBS는 2003년에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표 24> 방송사별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여부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사용	빈도	3	10	12	4	10	39
		퍼센트	5.4	17.9	21.4	7.1	17.9	13.9
	미사용	빈도	53	46	44	52	46	241
		퍼센트	94.6	82.1	78.6	92.9	82.1	86.1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사용	빈도	11	9	11	4	6	41
		퍼센트	19.6	16.1	19.6	7.1	10.7	14.6
	미사용	빈도	45	47	45	52	50	239
		퍼센트	80.4	83.9	80.4	92.9	89.3	85.4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사용	빈도	4	14	9	12	8	47
		퍼센트	7.1	25.0	16.1	21.4	14.3	16.8
	미사용	빈도	52	42	47	44	48	233
		퍼센트	92.9	75.0	83.9	78.6	85.7	83.2
	전체	빈도	56	56	56	56	56	28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KBS: $X^2=9.652$, $df=4$, $p<.047$, MBC: $X^2=5.543$ $df=4$, $p<.236$, SBS: $X^2=7.568$, $df=4$, $p<.109$

(4)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방송 3사의 뉴스 가운데 제목에 직접인용구가 등장한 사례는 모두 127건이었다. 그 가운데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와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일치하는 경우는 70건(55.1%)이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57건(44.9%)이었다(<표 25> 참조). 즉, 제목에 직접인용구가 등장한 뉴스의 절반을 다소 넘는 경우에만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제목과 본문 간에 직접인용구가 일치하는 비율은 2003년과 200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일치	빈도	7	20	18	10	15	70
	퍼센트	38.9	60.6	56.3	50.0	62.5	55.1
불일치	빈도	11	13	14	10	9	57
	퍼센트	61.1	39.4	43.8	50.0	37.5	44.9
전체	빈도	18	33	32	20	24	127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X^2=3.075$, $df=4$, $p<.545$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의 제목-본문 간 직접인용구 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KBS는 일치하는 경우가 전체 사례 39개 가운데 28건(71.5%),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11건(28.2%)이었다. MBC와 SBS는 일치하는 비율이 절반 조금 안되는 정도로 엇비슷했다. 즉, MBC는 전체 사례 41개 가운데 20건(48.8%)이 일치했고, 21건(51.2%)이 일치하지 않았다. SBS는 전체 사례 47개 가운데 22건(46.8%)이 일치했으며, 25건(53.2%)이 일치하지 않았다.

제목-본문 간 직접인용구 일치도를 연도별로 보면, KBS의 경우 2003년에 MBC의 경우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표 26> 방송사별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직접인용구 간의 일치도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일치	빈도	2	9	8	3	6	28
		퍼센트	66.7	90.0	66.7	75.0	60.0	71.8
	불일치	빈도	1	1	4	1	4	11
		퍼센트	33.3	10.0	33.3	25.0	40.0	28.2
	전체	빈도	3	10	12	4	10	39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일치	빈도	4	4	4	3	5	20
		퍼센트	36.4	44.4	36.4	75.0	83.3	48.8
	불일치	빈도	7	5	7	1	1	21
		퍼센트	63.6	55.6	63.6	25.0	16.7	51.2
	전체	빈도	11	9	11	4	6	41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일치	빈도	1	7	6	4	4	22
		퍼센트	25.0	50.0	66.7	33.3	50.0	46.8
	불일치	빈도	3	7	3	8	4	25
		퍼센트	75.0	50.0	33.3	66.7	50.0	53.2
	전체	빈도	4	14	9	12	8	47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KBS: $X^2=2.539$, $df=4$, $p<.638$, MBC: $X^2=5.393$, $df=4$, $p<.249$, SBS: $X^2=3.155$, $df=4$, $p<.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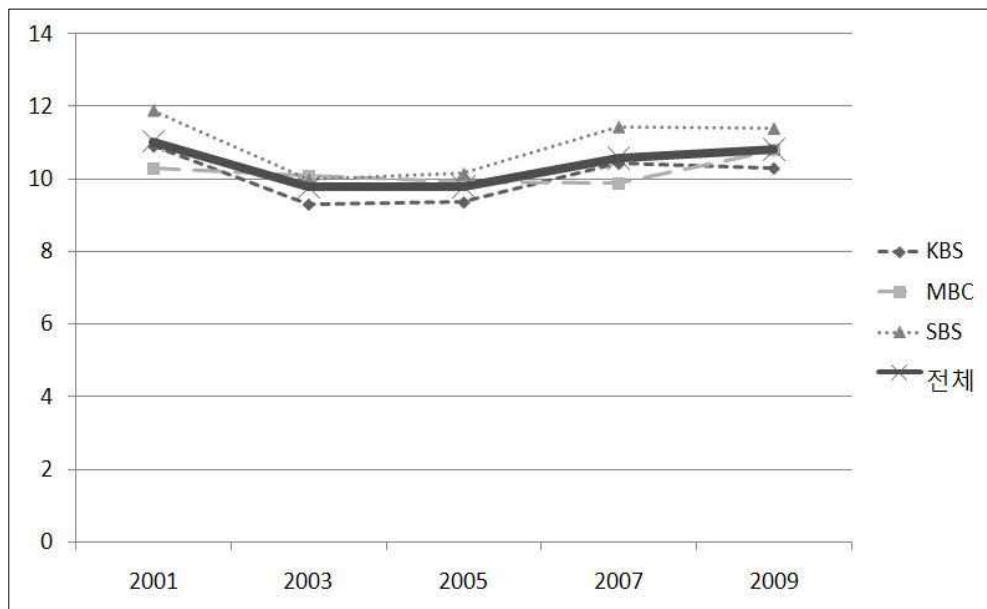
(5) 전체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10.4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뉴스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그림 18> 참조). 뉴스에 사용한 전체 문장 수는 방송 3사가 모두 엇비슷한 가운데, SBS가 가장 많았고(10.67개), MBC(10.20개)와 KBS(10.06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가 사용한 전체 문장 수는 2001년이 가장 많았으나 2003년과 2005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그 이후 SBS와 KBS는 2007년에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27> 전체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10.91	9.30	9.36	10.43	10.30	10.06
	SD	3.98	2.40	2.17	2.63	2.89	2.93
MBC	M	10.30	10.09	9.91	9.88	10.80	10.20
	SD	2.76	3.08	2.44	3.35	2.21	2.80
SBS	M	11.89	9.98	10.14	11.43	11.39	10.67
	SD	3.32	2.26	2.33	3.79	2.69	3.02
전체	M	11.04	9.79	9.80	10.58	10.83	10.41
	SD	3.43	2.61	2.33	3.34	2.64	2.94



<그림 18> 전체 문장 수

(6)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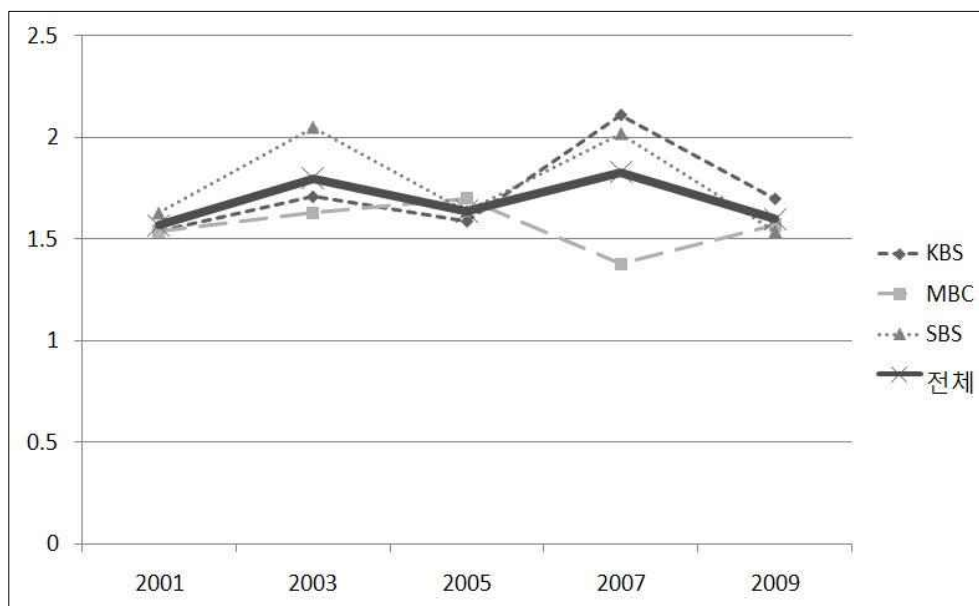
① 방송 3사의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1.7개의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를 사용하여 뉴스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그림 19> 참조).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는 SBS가 가장 많았고(1.78개), KBS(1.73개)는 평균치 보다 다소 높게, 그리고 MBC(1.56개)는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방송 3사에서 발견되는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는 KBS와 SBS의 경우 2003년과 2007년에 증가했으며, MBC의 경우 2007년에 감소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22개(2007년 SBS)였고, KBS와 이 수치 최대값은 6개(2001, 2007, 2009년)였으며 MBC의 이 수치 최대값 역시 6개였다(2005년).

<표 28>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1.54	1.71	1.59	2.11	1.70	1.73
	SD	1.51	1.14	.93	1.17	1.17	1.21
MBC	M	1.54	1.63	1.70	1.38	1.57	1.56
	SD	1.10	1.23	1.44	1.00	1.20	1.20
SBS	M	1.63	2.05	1.64	2.02	1.54	1.78
	SD	1.42	1.62	1.29	2.98	1.14	1.82
전체	M	1.57	1.80	1.64	1.83	1.60	1.69
	SD	1.35	1.35	1.23	1.95	1.17	1.44



<그림 19>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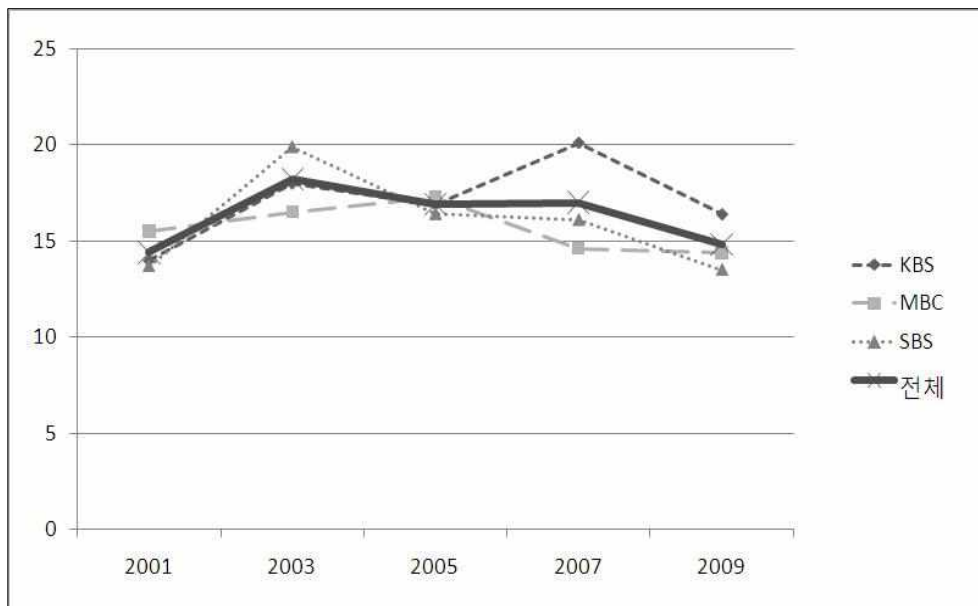
②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방송 3사의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은 16.3%였다(<표 29>, <그림 20> 참조).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은 방송 3사 모두 엇비슷한 가운데, KBS가 가장 높았고(17.2%), MBC(15.7%)와 SBS(15.9%) 모두 평균 비율 보다 다소 낮았다.

방송사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KBS의 경우 2007년 증가 후 2009년 감소했고, SBS는 2003년 증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MBC의 경우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단위:%)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14.0	18.0	16.9	20.1	16.4	17.2
MBC	15.5	16.5	17.3	14.6	14.4	15.7
SBS	13.7	19.9	16.4	16.1	13.5	15.9
전체	14.4	18.2	16.9	17.0	14.8	16.3



<그림 20>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7)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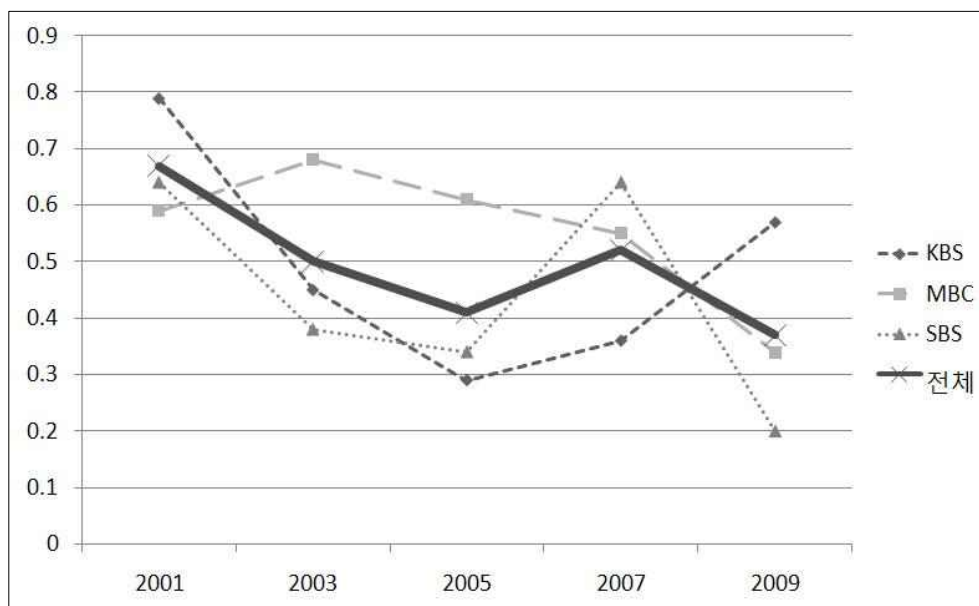
① 방송 3사의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5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5개꼴로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그림 21> 참조).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55개), KBS(.49개)는 평균치와 비슷했으며, SBS(.44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의 수는 2003년과 2005년 계속 감소했다. 특히, SBS는 2007년에 급증 후 2009년 급감했으며, KBS는 2009년에 급증했다. MBC의 경우 2003년 이후 2009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하나의 뉴스에서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9개였다(2001년 KBS).

<표 30>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79	.45	.29	.36	.57	.49
	SD	1.76	1.01	.65	.92	.89	1.12
MBC	M	.59	.68	.61	.55	.34	.55
	SD	1.32	1.01	1.23	1.22	.75	1.12
SBS	M	.64	.38	.34	.64	.20	.44
	SD	1.26	.70	.92	1.26	.55	.99
전체	M	.67	.50	.41	.52	.37	.49
	SD	1.45	.92	.97	1.14	.76	1.08



<그림 21>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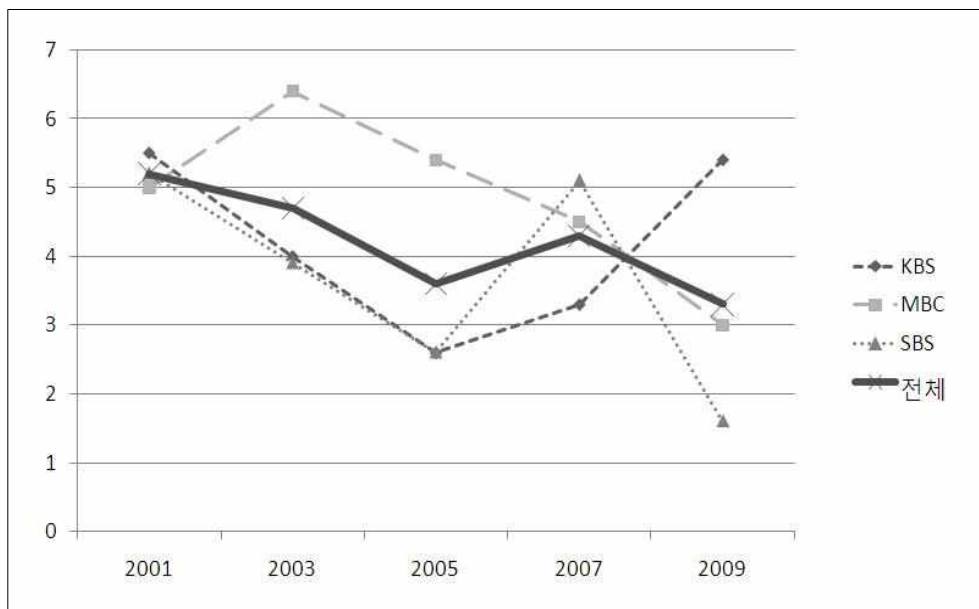
②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방송 3사의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은 평균 4.2%였다(<표 31>, <그림 22> 참조).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은 방송 3사가 모두 엇비슷한 가운데, MBC가 가장 높았고(4.9%), KBS(4.1%)와 SBS(3.7%)는 모두 평균 비율보다 낮았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은 2003년과 2005년 계속 감소했다. SBS는 2007년 증가 후 2009년 감소했으며, KBS는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단위: %)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5.5	4.0	2.6	3.3	5.4	4.1
MBC	5.0	6.4	5.4	4.5	3.0	4.9
SBS	5.2	3.9	2.6	5.1	1.6	3.7
전체	5.2	4.7	3.6	4.3	3.3	4.2



<그림 22> 전체 문장 수 대비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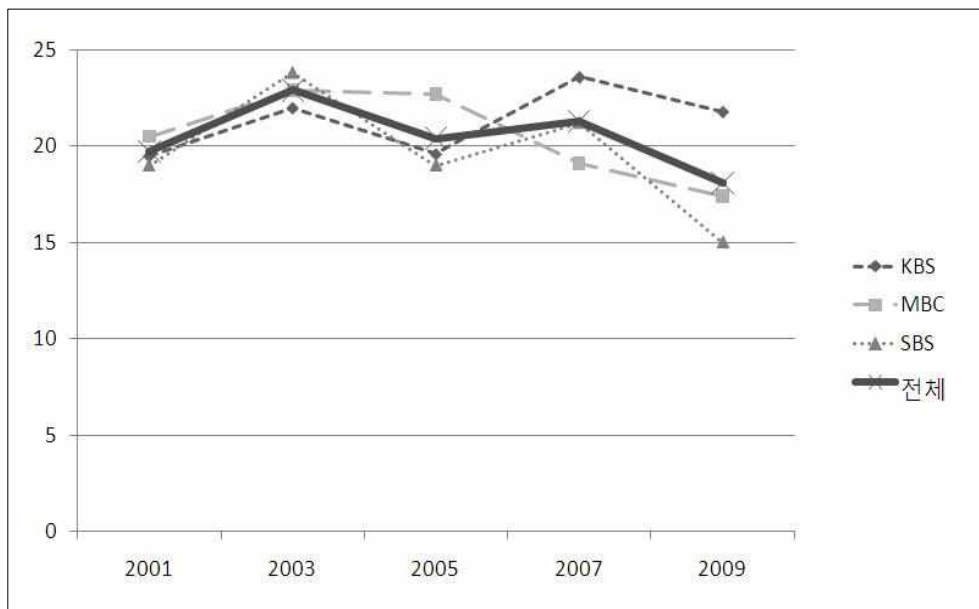
③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방송 3사의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비율은 평균적으로 20.5%였다(<표 32>, <그림 23> 참조).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은 방송 3사가 모두 엇비슷한 가운데, KBS가 가장 높았고(21.3%), MBC(20.5%)는 평균 비율과 같았으며, SBS(19.6%)는 평균 비율보다 다소 낮았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의 수의 비율은 2005년과 200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SBS는 2003년에 급증 후 2005년과 2009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단위:%)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19.5	22.0	19.6	23.6	21.8	21.3
MBC	20.5	22.9	22.7	19.1	17.4	20.5
SBS	19.0	23.8	19.0	21.2	15.0	19.6
전체	19.7	22.9	20.4	21.3	18.1	20.5



<그림 23> 전체 문장 수 대비 실명과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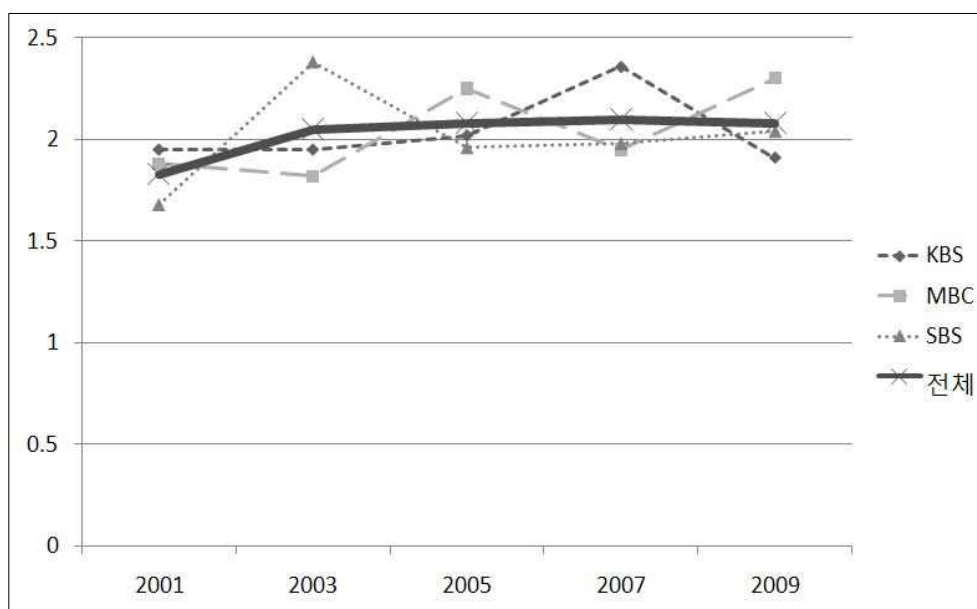
(8) 실명 취재원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약 2개의 실명 취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그림 24> 참조). 실명 취재원을 사용한 수는 방송 3사가 모두 엇비슷한 가운데, KBS(2.04개)와 MBC(2.04개)가 평균치보다 조금 많았고, SBS(2.01개)는 평균치보다 조금 적었다.

SBS는 2003년에 실명 취재원 수가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했으며, KBS는 2007년에 조금 증가했다. MBC의 경우 2005년과 200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실명 취재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11개였다(2001년 SBS).

<표 33> 실명 취재원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1.95	1.95	2.02	2.36	1.91	2.04
	SD	1.59	1.24	1.07	1.26	1.16	1.28
MBC	M	1.88	1.82	2.25	1.95	2.30	2.04
	SD	1.15	1.18	1.72	1.39	1.49	1.41
SBS	M	1.68	2.38	1.96	1.98	2.04	2.01
	SD	1.19	1.80	1.26	1.17	1.28	1.37
전체	M	1.83	2.05	2.08	2.10	2.08	2.03
	SD	1.32	1.44	1.38	1.28	1.32	1.35



<그림 24> 실명 취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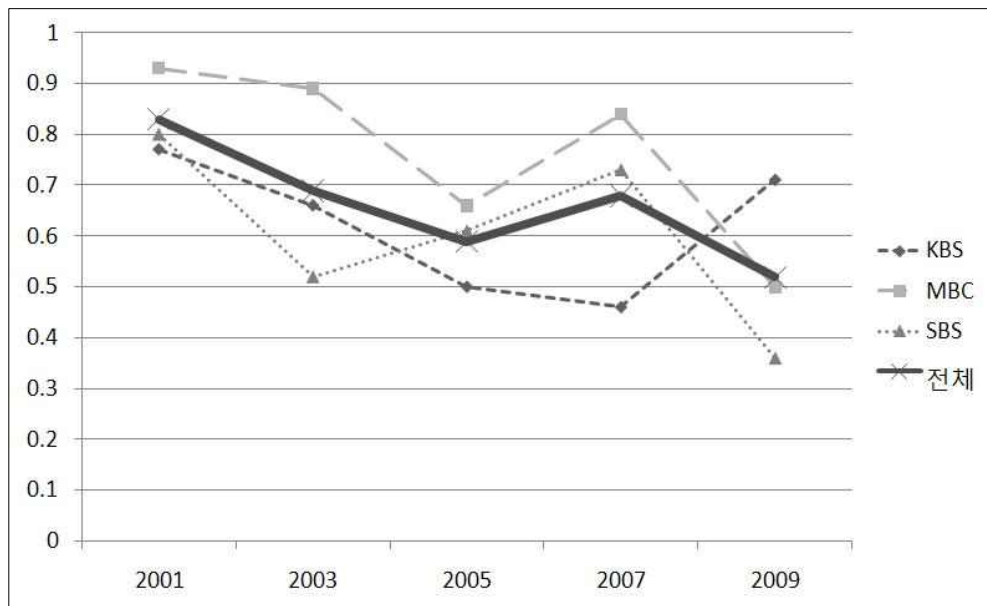
(9) 익명 취재원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66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6~7개꼴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그림 25> 참조). 익명 취재원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76개), KBS(.62개)와 SBS(.60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익명 취재원 수는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에 조금 증가한 후 다시 감소했다. KBS의 경우 2009년에 급증했고, SBS와 MBC도 2007년에 증가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익명 취재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9개였다(2001년 KBS).

<표 34> 익명 취재원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77	.66	.50	.46	.71	.62
	SD	1.50	1.27	1.08	.89	.95	1.16
MBC	M	.93	.89	.66	.84	.50	.76
	SD	1.28	1.14	.96	1.35	.76	1.12
SBS	M	.80	.52	.61	.73	.36	.60
	SD	1.26	.74	1.06	1.12	.67	1.00
전체	M	.83	.69	.59	.68	.52	.66
	SD	1.34	1.08	1.03	1.14	.81	1.10



<그림 25> 익명 취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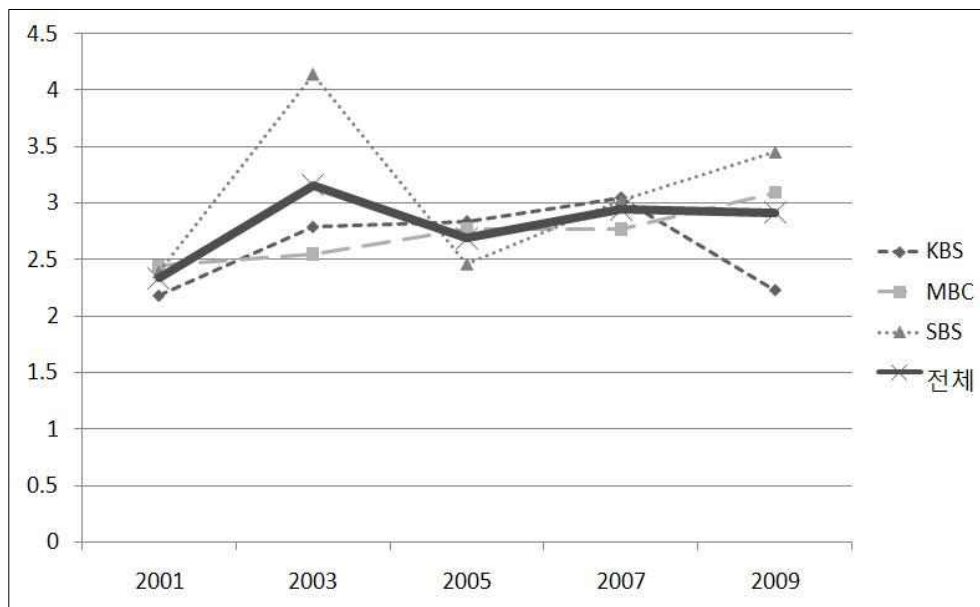
(10)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attributed)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2.8개의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그림 26> 참조).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의 수는 SBS가 가장 많았고(3.09개), MBC(2.73개)와 KBS(2.62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의 수는 SBS의 경우 2003년 급증 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7년과 2009년 모두 증가했다. KBS의 경우 2009년에 감소했으며, MBC는 매년 비슷한 가운데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나의 뉴스에서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24개였다(2007년 SBS).

<표 35>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2.18	2.79	2.84	3.05	2.23	2.62
	SD	1.81	2.20	1.66	1.73	1.53	1.82
MBC	M	2.45	2.55	2.77	2.77	3.09	2.73
	SD	1.67	2.01	2.05	2.12	2.23	2.02
SBS	M	2.39	4.14	2.46	3.02	3.45	3.09
	SD	2.01	2.92	1.76	3.52	2.71	2.72
전체	M	2.34	3.16	2.69	2.95	2.92	2.81
	SD	1.83	2.49	1.83	2.57	2.25	2.23



<그림 26> 실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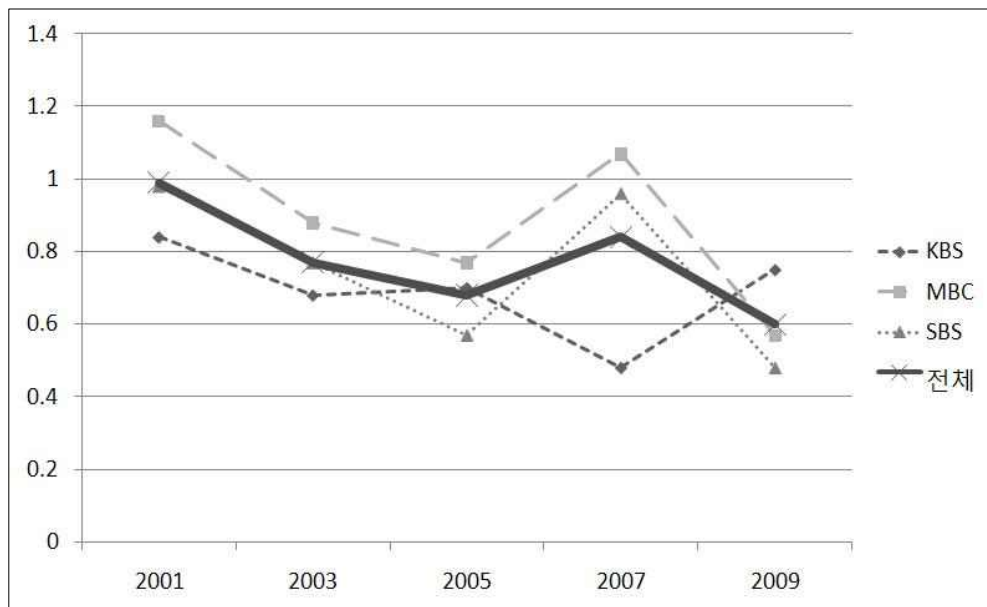
(11)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attributed)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8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8개꼴로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그림 27> 참조).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의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89개), SBS(.75개)와 KBS(.69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발견되는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의 수는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조금 증가한 후 2009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MBC와 SBS는 2007년에 급증 후 2009년 다시 감소했으며, KBS는 2009년에 증가했다. 하나의 뉴스에서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12개였다(2005년 KBS).

<표 36>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KBS	M	.84	.68	.70	.48	.75	.69
	SD	1.65	1.30	1.77	.95	1.01	1.37
MBC	M	1.16	.88	.77	1.07	.57	.89
	SD	1.68	1.16	1.25	1.94	.93	1.45
SBS	M	.98	.77	.57	.96	.48	.75
	SD	1.54	1.27	1.04	1.75	.97	1.35
전체	M	.99	.77	.68	.84	.60	.78
	SD	1.62	1.24	1.38	1.62	.97	1.39



<그림 27> 익명 취재원이 적시된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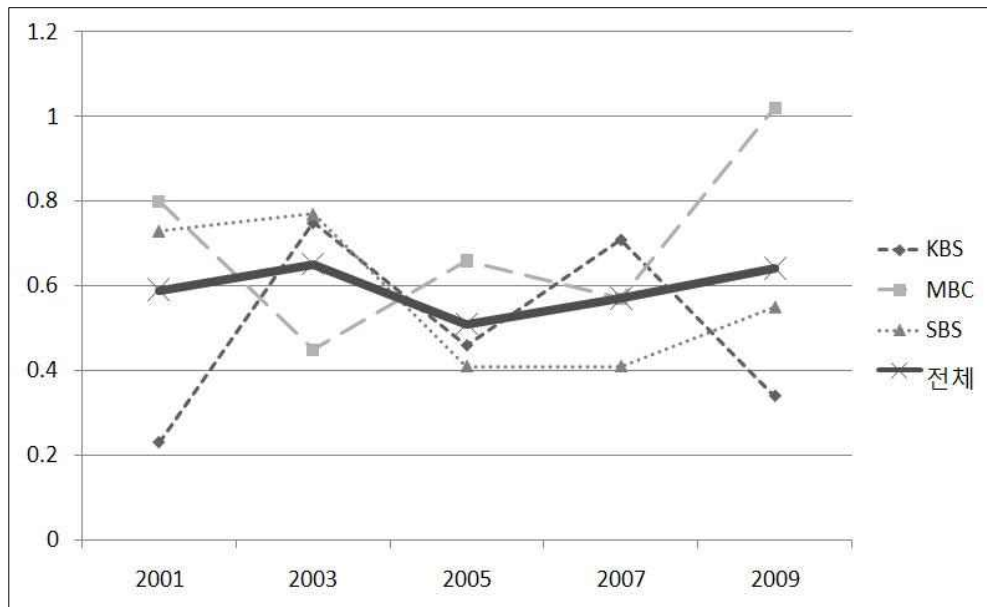
(12)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6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6개꼴로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그림 28> 참조).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가 등장한 문장의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70개), SBS(.58개)는 평균치보다 다소 낮았으며, KBS(.50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서 등장하는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는 KBS의 경우 2003년에 그리고 MBC의 경우 2009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SBS는 모두 2009년에 증가 추세였으나, KBS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3년 KBS와 SBS).

<표 37>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23	.63	.75	1.25	.46	.81	.71	1.02	.34	.64	.50	.92
MBC	.80	.98	.45	.89	.66	1.01	.57	1.04	1.02	1.17	.70	1.03
SBS	.73	1.05	.77	1.14	.41	.78	.41	.76	.55	.91	.58	.95
전체	.59	.94	.65	1.11	.51	.88	.57	.95	.64	.97	.59	.97



<그림 28>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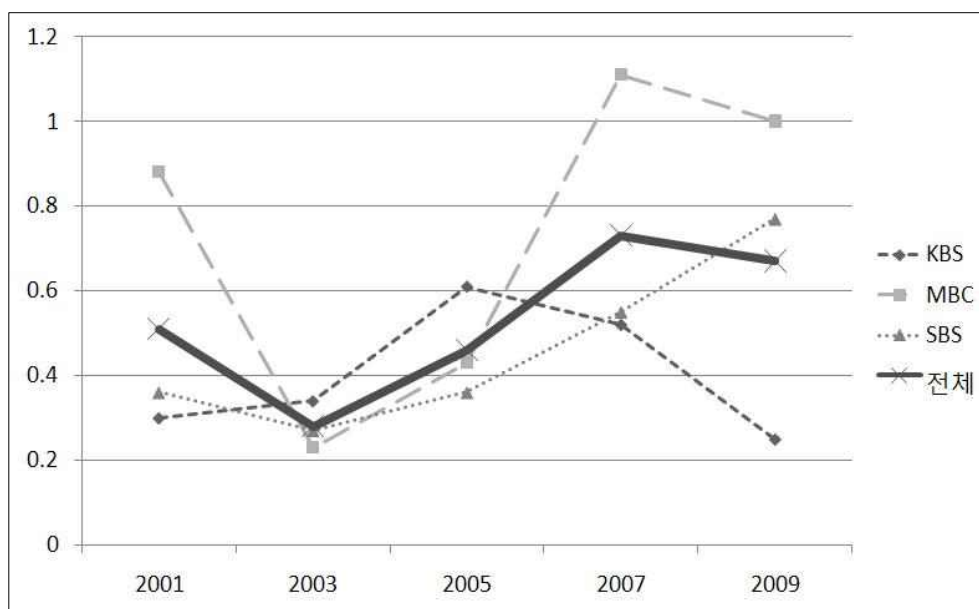
(13) 무(無)주체(또는 無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5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5개꼴로 무주체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그림 29> 참조). 무주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는 MBC가 가장 많았고(.73개), SBS(.46개)와 KBS(.40개)는 엇비슷한 가운데 평균치 이하였다.

방송 3사의 뉴스에 등장하는 무주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는 2003년에 감소한 후 200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C는 2007년에 급증했으며, SBS는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KBS는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 하나의 뉴스에서 무주체 주관적 술어의 문장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7년과 2009년 MBC, 2009년 SBS).

<표 38> 무주체/무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30	.50	.34	.64	.61	.82	.52	.79	.25	.55	.40	.68
MBC	.88	1.10	.23	.50	.43	.71	1.11	1.25	1.00	1.27	.73	1.06
SBS	.36	.65	.27	.67	.36	.59	.55	.76	.77	1.29	.46	.85
전체	.51	.83	.28	.61	.46	.72	.73	.99	.67	1.13	.53	.89



<그림 29> 무주체/무주어 주관적 술어의 문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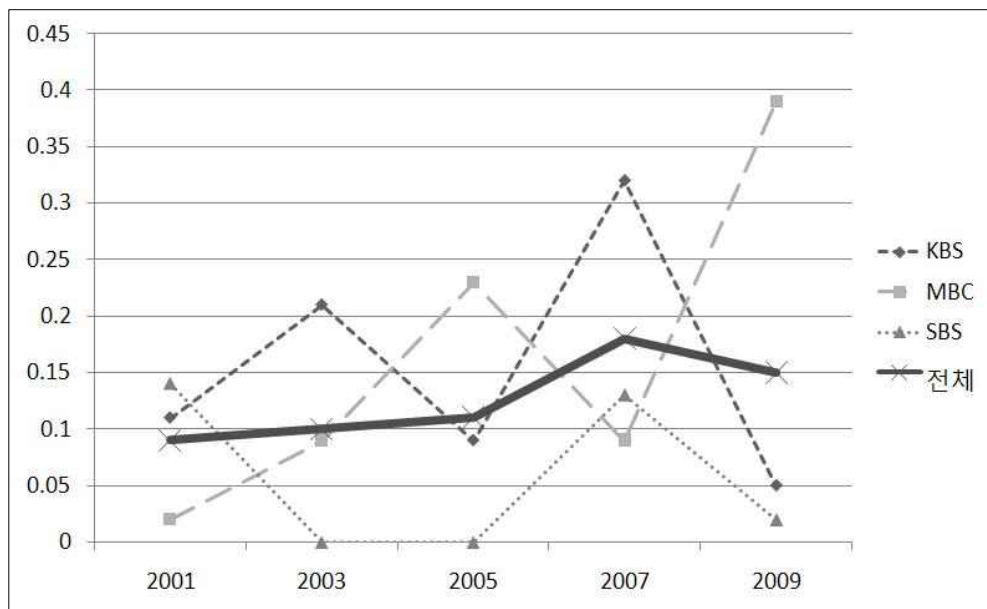
(14)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1개 즉 10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신문식의 무리한 조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표 39>, <그림 30> 참조). 신문식 또는 무리한 조어의 수는 MBC와 KBS가 가장 많았고(.16개), SBS(.06개)는 평균치 이하였다.

신문식의 무리한 조어의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SBS의 경우 2003년과 2005년에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후 다소 증가했다. KBS의 경우 2007년 급증 후 2009년 다시 급감했으며, MBC는 2009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에서 신문식 또는 무리한 조어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9년 MBC).

<표 39>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11	.37	.21	.46	.09	.44	.32	.74	.05	.23	.16	.48
MBC	.02	.13	.09	.35	.23	.50	.09	.44	.39	.91	.16	.54
SBS	.14	.35	.00	.00	.00	.00	.13	.33	.02	.13	.06	.23
전체	.09	.31	.10	.34	.11	.40	.18	.54	.15	.57	.13	.44



<그림 30> 신문식 주어 또는 무리한 조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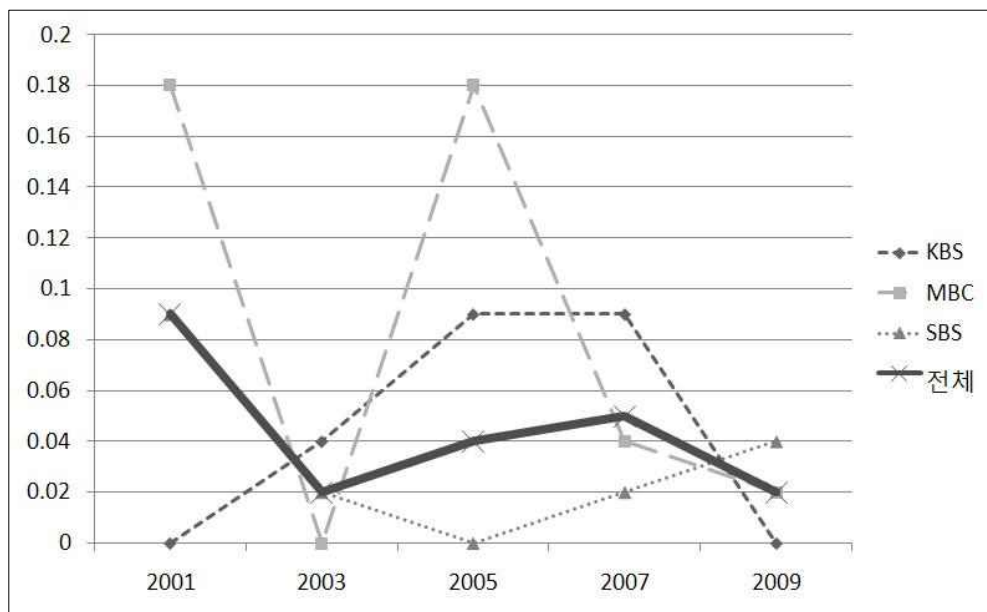
(15)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4개 즉 25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40>, <그림 31> 참조).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는 방송 3사의 사례가 모두 매우 적은 가운데, MBC(.05개), KBS(.04개) 그리고 SBS(.03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KBS의 경우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급감했다. MBC는 2003년 급감과 2005년 급증을 보인 후 2007년과 2009년에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SBS는 2005년까지 감소 추세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나의 뉴스에서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5개였다(2001년 MBC).

<표 40>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0	.00	.04	.27	.09	.44	.09	.35	.00	.00	.04	.28
MBC	.18	.74	.00	.00	.18	.13	.04	.19	.02	.13	.05	.36
SBS	.09	.35	.02	.13	.00	.00	.02	.13	.04	.19	.03	.20
전체	.09	.48	.02	.17	.04	.27	.05	.24	.02	.13	.04	.28



<그림 31>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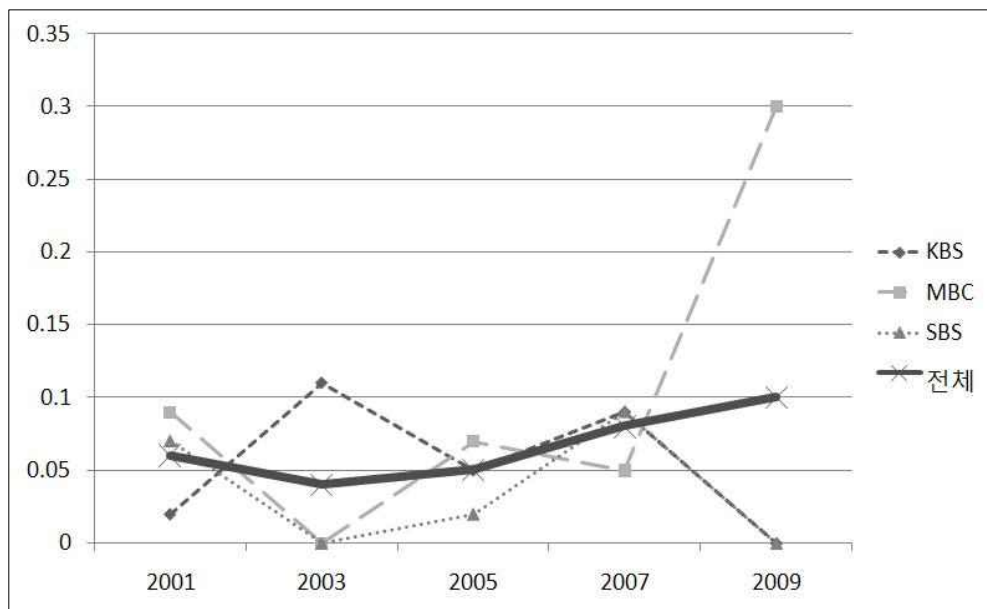
(16) 과어휘 수

방송 3사는 평균적으로 뉴스 당 0.06개 즉 16개의 뉴스에서 약 1개꼴로 과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례가 매우 적었다(<표 41>, <그림 32> 참조). 과어휘가 등장한 뉴스는 MBC가 가장 많았고(.10개), KBS(.05개)와 SBS(.04개)는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어휘의 등장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KBS와 SBS는 2009년 감소한 반면, MBC는 같은 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뉴스 아이템에서 과어휘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4개였다(2007년 SBS).

<표 41> 과어휘 수

	2001		2003		2005		2007		2009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KBS	.02	.13	.11	.31	.05	.40	.09	.29	.00	.00	.05	.27
MBC	.09	.29	.00	.00	.07	.26	.05	.30	.30	.54	.10	.34
SBS	.07	.32	.00	.00	.02	.13	.09	.55	.00	.00	.04	.29
전체	.06	.26	.04	.19	.05	.29	.08	.40	.10	.34	.06	.30



<그림 32> 과어휘 수

5. 방송 3사 종합 및 결론

방송 3사의 분석결과를 국어 측면과 저널리즘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 측면

국어학 관점의 유목 16개를 발견 빈도에 따라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 등 세 가지로 나누어보았다(<표 42>, <그림 33> 참조). 고빈도 유목은 기사당 .3개 이상 발견된 유목이며, 중빈도는 .3~.1개, 저빈도는 .1개 이하로 발견된 유목이다. 특정 유목이 기사당 .3개로 발견됐다는 것은 기사 10개 중에서 해당 유목이 포함된 기사가 3개 정도라는 뜻이다. 또 하루에 20~25개의 뉴스가 방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기사가 매일 7~8개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발견 빈도는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수준이므로, 고빈도 유목은 방송사들이 뉴스 작성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대상들이다.

고빈도 유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우선 불필요하게 ‘~에 대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방송 3사를 통틀어 2001~2009년에 연도별도 큰 변화 없이 고빈도(.52개)로 발견되었다. 즉 이 표현은 기사를 하나 걸러 가며 매번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이 정도의 빈도라면, 기자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에 대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표현은 문장성분 간의 관계를 흐리고 명료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꼭 개선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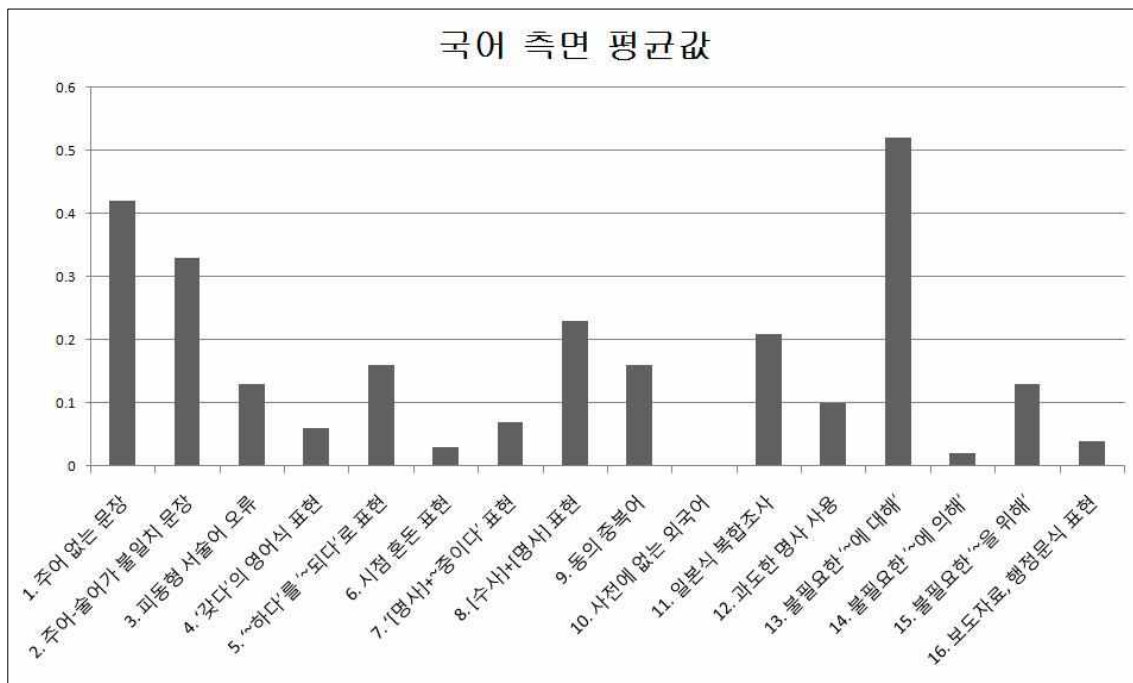
또 고빈도 유목 중에서 주어에 없는 문장과 주어-술어 불일치 문장은 2005년까지 발견 빈도가 낮다가 그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이 두 유목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 두 유목은 어휘나 표현보다는 문장 측면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 포함됐는데,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방송뉴스의 문장구조 문제가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주어에 없는 문장과 주어-술어 불일치 문장이 하나의 뉴스에서 혼합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방송 뉴스의 문장 오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이 분석결과는 기자들이 관행적으로 문장 구조를 어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유목이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급증한 이유를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빈도 유목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하나는 2007년에 증가한 후에 2009년에는 감소한 유목들이며, 나머지는 2005년에 증가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인 유목이다. 전자는 [수사+ 명사] 표현, 일본식 복합조사, ‘~하다’를 ‘~되다’로 표현한 경우, 동의 중복어,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이고, 후자는 불필요하게 ‘~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중빈도 유목은 발견 빈도에 있어서 고빈도 유목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유목의 총 수(6개)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기사에 혼합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고빈도 유목에 못지않게 주의하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모든 중빈도 유목의 발견 빈도가 감소 상태인 점은 고무적이다.

저빈도 유목에는 과도한 명사 사용, ‘[명사]+ ~중이다’ 표현, ‘갓다’의 영어식 표현, 행정 문투/보도자료 표현, 시점 혼돈 표현, 불필요한 ‘~의해’, 사전에 없는 외국어 등 7개가 포함됐다. 이들은 발견 빈도가 낮고, 대부분 감소 상태여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했다. 다만 ‘[명사]+ ~중이다’ 표현만 유일하게 2009년에 증가한 유목이어서 주의가 요망됐다.

<표 42> 방송 3사의 국어 측면 평균

빈도	변화 유형	유목	방송 3사 평균
고빈도 3개 (.3 이상)	변화 없이 유지	불필요한 ‘~에 대해’	.52
	2005년 이후 증가 추세	주어 없는 문장	.42
		주어-술어 불일치 문장	.33
중빈도 6개 (.3~.1)	2007년 증가 후 2009년 감소	[수사+ 명사] 표현	.23
		일본식 복합조사	.21
		‘~하다’를 ‘~되다’로 표현	.16
		동의 중복어	.16
		잘못된 피동형 서술어	.13
	2005년 증가 후 감소 추세	불필요한 ‘~을 위해’	.13
저빈도 7개 (.1 이하)	들쭉날쭉 후 2009년 감소	과도한 명사 사용	.10
	2009년 증가	‘[명사]+~중이다’ 표현	.07
	2007년 증가 후 2009년 감소	‘갓다’의 영어식 표현	.06
	2009년 감소	행정문투/보도자료 표현	.04
	들쭉날쭉 후 2009년 감소	시점 혼돈 표현	.03
	지속적 감소 추세	불필요한 ‘~에 의해’	.02
	2005년 이후 증가 추세	사전에 없는 외국어	.00



<그림 33> 방송 3사의 국어 측면 평균

2) 저널리즘 측면

유목 순서대로 특징을 보면, 방송 3사의 뉴스 주제 중 상위 3개 주제는 ‘사회’, ‘문화’, ‘경제’였다(<표 43> 참조). 특히 문화 뉴스는 매년 증가했으며 경제 뉴스는 2005년과 2007년에 급증했다. 사회 분야는 전통의 뉴스 영역이어서 차지하더라도, 문화와 경제 뉴스가 많았던 것은 이런 이슈들이 날이 갈수록 중시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 경향을 반영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과학기술, 및 교육 뉴스는 매우 적었는데, 이슈의 중요도에 비해 뉴스로서 과소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토대 정보가 확인된 뉴스는 97%에 달해, 방송뉴스 대부분은 확인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양호하며 긍정적인 분석결과였다.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뉴스의 비율은 15.1%였다.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뉴스 중에서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뉴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비율은 55.1%(일치하지 않는 비율 44.9%)였다.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뉴스가 15.1%이며, 이 중에서 44.9%가 불일치를 보였으므로, 전체 방송뉴스의 6.8%는 뉴스 본문의 직접 인용문을 적당히 고쳐서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본문에도 없는 직접 인용문을 제목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루 뉴스 아이템 25개 중에서 3.8개(15.1%)는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하고, 1.7개(15.1%의 44.9%)는 편집부에서 만든 말을 인용 부호로 묶어서 직접 인용구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우선, 방송사들은 뉴스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비율(15.1%)에 대해 숙고해 봐야 한다. 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 방송사 특유의 ‘아이템 나누기’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뉴스는 사안의 여러 측면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종합 보도하기보다는 사안의 각 측면을 잘게 나누어 여러 개의 뉴스 아이템으로 나누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취재원(대통령, 정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등)이 주요 사안에 대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언급을 하면, 그 취재원 한 사람의 말만으로 독립된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뉴스 아이템의 제목은 취재원의 말 가운데 일부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뉴스의 15.1%가 직접 인용구를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분석 결과는 문제일 수 있다. 주요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분석이 결여된 방송뉴스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제목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 규범이므로 방송사들은 이를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제목의 직접 인용구가 더 문제시되는 경우는 그것이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목의 직접인용구와 뉴스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방송뉴스의 6.8%였다. 방송뉴스의 제목은 화면의 어깨걸이나 자막에 표시되면서 글자 수를 맞추어야 하는 애로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인용구를 변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연구는 뉴스의 제목이 취재원의 말을 (문맥과 의미의 왜곡이 없는 가운데) ‘단순 축약’한 경우까지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방송뉴스 제목 뽑기의 태생적 제약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렇게 완화된 코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용구를 사용한 제목 가운데 44.9%가 취재원 말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구를 썼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취재원의 말을 조합하여 인용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제목에 사용한다면, 그 제목은 취재원이 말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방송뉴스의 전체 문장 수는 평균 약 10개로 조사기간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표 43>, <그림 34> 참조). 실명 개인을 직접 인용한 문장 수는 1.7개, 그리고 그런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3%였다. 또 익명 개인을 직접 인용한 문장 수는 0.5개, 그리고 그런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였다. 우선 실명 개인을 직접 인용한 문장이 익명 개인을 직접 인용한 문장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은 긍정적이다. 위 실명 개인의 비율과 익명 개인의 비율의 합, 즉 실명이든 익명이든 개인을 직접 인용한 문장의 비율은 20.5%다. 다시 말해, 방송뉴스 문장 10개 중에서 2개만 (실명이든 익명이든) 취재원의 육

성이며 나머지 8개는 취재원이 아니라 기자가 한 말이다. 해석적 저널리즘이 중시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자의 말이 방송뉴스 분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좋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기자들의) 주장이 사실을 압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Kovach & Rosenstiel, 2007). 한편, 실명 취재원은 평균 2개, 익명 취재원은 0.7개, 실명 취재원을 적시한 문장은 2.8개, 익명 취재원을 적시한 문장은 0.8개였다. 실명 취재원이 익명 취재원보다 많았고, 실명 취재원 적시 문장이 익명 취재원 적시 문장보다 많았던 것은 긍정적이다.

위 단락의 분석결과는 언급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방송뉴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방송뉴스의 전체 문장이 평균 10개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취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취재원의 말을 육성 그대로 얼마나 많이 전달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여건에서 뉴스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겠는가? 방송기자들도 뉴스가 지나치게 짧다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방송뉴스의 형식(포맷)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하루에 방송되는 모든 뉴스를 길게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더 충실하여, 길게 보도해야 할 기사는 충분히 길게, 짧게 보도해도 무방한 기사는 과감하게 짧게 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는 뉴스 당 0.6개가 발견되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방송뉴스에 포함된 인용문은 라이브 인터뷰(취재원의 직접인용 문장)와 기사문장 속의 (간접)인용문을 모두 합하여 3.59개이므로,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0.6개) 비율은 16.7%(0.6/3.59)이다. 즉 전체 인용문 6개 가운데 약 1개는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의 특성상 라이브 인터뷰에는 술어를 붙일 수 없으므로, 라이브 인터뷰 문장의 수(2.18개)를 제외하면 기자가 직접 인용구의 술어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은 1.41개(3.59-2.18)에 불과하다. 주관적 술어가 .59개이므로 기자가 직접 인용구의 술어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의 41.8%(.59/1.41)는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셈이다. 계속되는 인용문에 동일한 술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주관적 술어 남용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어 반복은 뉴스작성의 금기사항이지만, 인용구의 술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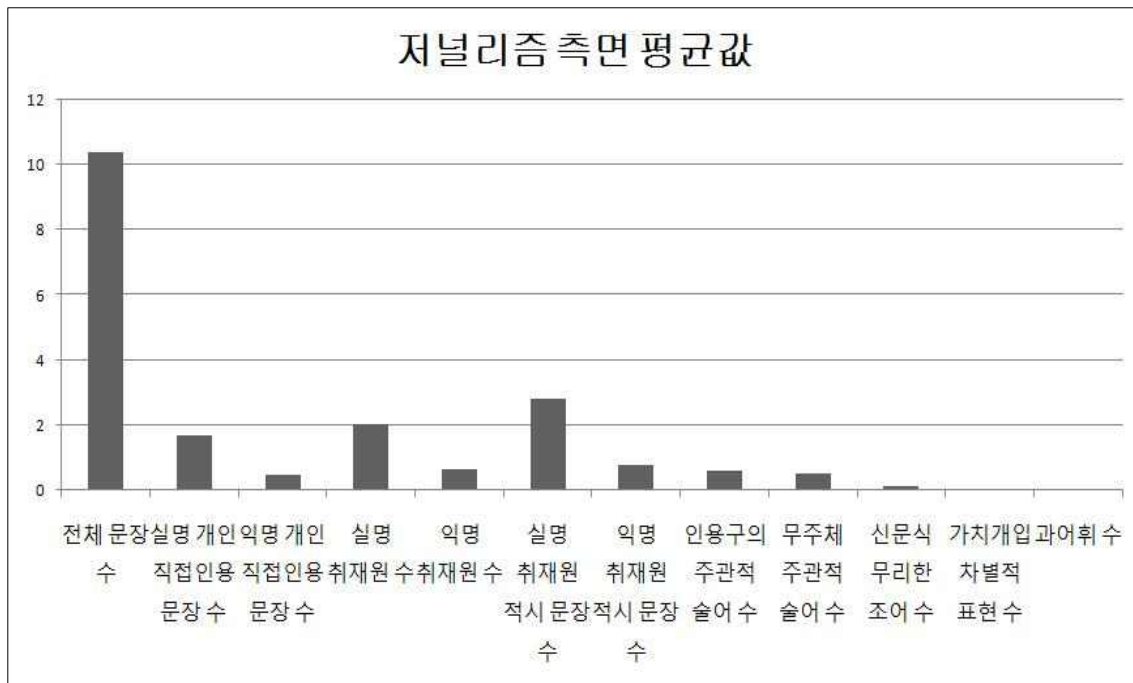
무주체 주관적 술어는 뉴스 당 0.53개가 발견됐는데, 하나의 뉴스에 2개 이상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루 뉴스를 25개로 가정하면, 12~13개의 뉴스가 주관적 술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역시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

그 밖에, 가치가 개입된 차별적 표현이나 과어휘의 사례는 매우 적어서 긍정적이었다. 다만, 신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리한 조어(.13개)는 하루 뉴스 25개에서 3번 정도 나오는 수준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표 43> 방송 3사의 저널리즘 종합

유목	비고
주제	‘사회’ ‘문화’ ‘경제’는 많고, ‘보건복지’ ‘과학기술’ ‘교육’은 적음
토대 정보의 신뢰성	97%
제목의 직접인용구 사용	15.1%
제목 직접인용구의 본문 일치도	55.1%

전체 문장 수	10.4개, 큰 변화 없이 유지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1.7개, 큰 변화 없이 유지
전체 문장 중 실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의 비율	16.3%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	.5개, 들쭉날쭉
전체 문장 중 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의 비율	4.2%
전체 문장 중 실명+익명 개인 직접인용 문장 수의 비율	20.5%, 2009년 18.1%로 최저치
실명 취재원 수	2개, 큰 변화 없이 유지
익명 취재원 수	.7개, 다소 감소 추세
실명 취재원 적시 문장 수	2.8개
익명 취재원 적시 문장 수	.8개, 감소 추세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6개, 큰 변화 없이 유지
무주체 주관적 술어 수	.5개, 증가 추세
신문식 무리한 조어 수	.1개
가치개입 차별적 표현 수	.04개
과어휘 수	.06개



<그림 34> 방송 3사의 저널리즘 측면 평균

참고문헌

- 강명구 (1989). 脫事實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6집, 85~111.
- 강형철 (2004). 『공영방송론』. 서울: 나남출판.
- 국립국어원 · MBC (2008). 『보도가치를 높이는 TV 뉴스 문장 쓰기』, 서울: 시대의 창.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학 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 성차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 내용 분석. 『한국방송학보』, 17-3, 197~238.
- 김기태 (2005). 방송 언어의 공식성 사례 분석 연구: 연예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61~84.
- 김상호 (200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해석 공동체의 해석틀로서의 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3호, 5-38.
- 김성규·최혜원·한성우 (2008). 방송발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임 (2005). 방송언어의 공정성 사례분석 연구: 연예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한국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5년 가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46~168.
- 김일철 · 김승일 (2009). 언론인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18호』, 25-38.
- 김현주 (2006). 방송 언어의 공공성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2006 봄철 정기학술대회, 590-601.
- 김희진·정희창·박용찬 (2007). 『방송 뉴스의 어휘 선택』. 한국방송기자 클럽.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문종대·윤영태 (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93-112.
- 박광순 (2008).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신문의 지면변화,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78~298.
- 박선흥·배은미·이창환 (2008). 『신문 글 바꾸기: 올바른 기사 문장 작성법』. 서울: LG 상남언론재단.
- 박용찬 (2005). 『일본어 두 용어 순화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원.
- 박용찬·이대성 (2005).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원.
- 박재영 (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67-194.
- 박재영·이완수 (2007). 『한국 신문의 1면 기사: 뉴스 평가지수를 적용한 신문별, 연도별 비교 1990-2007』.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 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 해석과 객관화 담론 전략: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된 해설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29~251.

- 심훈 (2003).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 6하 원칙 기준으로 바라 본 공정성, 공정성에 대한 고민. 한국언론학회·KBS 공동 심포지엄 발표문, 7~32.
- 윤재홍 (2005). 한국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 뉴스 언어 선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4호, 104-129.
- 이준웅 (2004).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한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새로운 담론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언론 학회 <전환기의 한국언론> 토론회 토론문, 44~69.
- 이준웅,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67호, 9-44.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48-70.
- 임태섭 (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연구. 『언론과 사회』, 제1권, 67~109.
- 임태섭 (1999). 보도 교양 언어의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 발표문, 1~40.
- 임태섭 (2003a).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특정 집단 이념 대변하는 용어 경계해야. 『신문과 방송』, 1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태섭 (2003b).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도식적 표현 남용 사고 단순화 시켜. 『신문과 방송』, 2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태섭 (2003c).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신토불이 대박, 승합차는 일본말. 『신문과 방송』, 3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태섭 (2003d).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말이 안 되는 ‘보여지다’로부터. 『신문과 방송』, 4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태섭 (2003e).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 귀족화, 왕정시대 의식 재강화. 『신문과 방송』, 5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태섭 (2003f).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대란 열악 무차별 사용으로 의미 퇴색. 『신문과 방송』, 6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차재은 (2003).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 언어와 국어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연구소(편). 서울: 월인출판.
- 최영재·홍성구 (2004).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26-342.
- 최진근 (1992). 방송 언어에 나타난 음운 현상 실태 연구. 『우리말글 대구 어문논총』, 10, 155~206.
- 최진근 (1993a). 방송언어의 어휘 연구. 『우리말글 대구 어문논총』, 49~84.
- 최진근 (1993b). 방송언어의 문장 연구. 『우리말글 대구 어문논총』, 129~156.
- 황치성 (2008). 『갈등 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서울: 한국언론재단.
- MBC (2002). 『보도기사 가이드 북』. (미출판 내부용 보고서)
- MBC (2009).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미출판 내부용 보고서)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Vintage Books.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Lacy, S., Riffe, D., Stoddard, S., Martin, H. M., & Chang, Kuang-Kuo (2001). Sample size for newspaper content analysis in multi-year stud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4), 836-845.
- Mindich, D. T. Z. (1998). Standing up for the facts. *Media Studies Journal*, 12(3), 154-155.
- Riffe, D., Aust, C. F., & Lacy, S. (1993). The effectiveness of random, consecutive day and constructed week sampling in newspaper content analysis. *Journalism Quarterly*, 70, 133-139.
- Riffe, D., Lacy S., Nagovan J., & Brukum L. (1996). The effectiveness of simple random and stratified random sampling in broadcast news content analysi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159-168.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